

나누는 사람들

2021년 봄호 차례

- 1 여는 글 | COVID19 감춰진 진실
- 2-11 코로나19 감춰진 진실 | 마스크부터 백신, 그리고
- 12-14 전문가 특별인터뷰 | “코로나19는 결코 위험한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김상수 한의사, 『코로나 미스터리』 저자
- 15 코로나19와 살아온 1년, 회원님들의 이야기
- 16-17 2021 세계적이고 역사적인 그날들
- 18-21 우리가 몰랐던 트럼프, 미국 대선 부정부터 ‘MAGA’ 운동까지
- 22 2008 금융위기 세대 미국 청년들의 반란 ‘게임스탑’ 사태
- 23 세월호 유가족의 외침, “세월호 7주기까지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 24-25 회원 소식 | 가입, 증액, 특별후원 해주신 분들
- 26 현장 소식 |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른 ‘예방적 살처분’ 반대
〈산안마을〉 이성수 회원님
- 27 2020년 11-12월 살림보고

COVID19 감춰진 진실

코로나 팬데믹이 세계를 바꿨습니다. 하루아침에 인류가 단절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한순간에 마스크 씌워진 백신 주입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바이러스의 전염보다 더 빠른 공포의 전염 속에, 근본 자유와 주권이 침해되고 있습니다. 한번 헌납한 권리는 다시 찾기까지 몇 세대에 걸친 피와 눈물의 투쟁을 지불해야만 합니다. 어느덧 15개월째. 나눔문화는 처음부터 ‘무언가 심각하게 잘못되었다’는 직감으로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근본부터 되짚으며, 코로나 사태의 진실을 폭넓고 사려 깊게 연구해왔습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의 ‘주장’이 아닌 공신력 있는 ‘사실’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공포의 전염’ 속에서도 끈질기게 ‘다른 목소리’를 내온 세계 각 나라의 권위 있고 양심적인 의료인, 과학자, 언론인, 정치인,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부터 팬데믹을 ‘만든’ 이들의 공공연한 기획과 조작의 발설까지. 사실과 진실에는 보수도 진보도, 좌도 우도 없습니다. 사실은 사실이고 진실은 진실입니다. 인간에게 최초로 주입되는 ‘유전자 백신’ 접종을 목전에 둔 오늘. 긴박한 마음으로 세계의 증언들을 타전합니다.

‘만들어진’ 팬데믹

“코로나19는 계절성 감기에 불과하다, 이 공포는 가짜다”

“코로나19는 계절성 독감에 가깝다. 치사율은 0.1%” 2020년 3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국장 로버트 레드필드와 미국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 소장 앤서니 파우치 논문. 독감에 불과하다면 파우치는 통제 강화, 마스크 두겹쓰기, 전 미국인의 백신접종을 추진하며 코로나 정책을 좌우하고 있다.

“지난 2000년 동안 세계가 겪은 팬데믹 중 가장 덜 치명적인 편에 속한다. 2020년 6월까지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은 전 세계 인구의 0.006% 미만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실질적 위협이 아니다.” 2021년 1월에 출간된 『위대한리셋』, 세계경제포럼 회장 클라우스 슈밥. 그런데도 모두가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1년 내에 세계 성인의 40~70%가 감염될 것이며 대부분은 가볍게 앓거나 무증상으로 지나갈 것이다.” 2020년 2월, 하버드대 보건대학원 교수 마크 립시치

“한국에서 코로나19로 지난 1년간 1,200여 명이 죽었다. 매년 독감으로 1,000명 가까이 죽는다. 그때마다 보도하면 온 국민이 공포에 떠다.” 2021년 1월, 전 대한면역학회 회장 서울대의대 명예교수 이왕재

“코로나는 ‘글로벌 허위 경보’다. 위험은 과대평가됐다. 국가가 가짜 뉴스의 최대 생산자였다.” 2020년 5월에 유출된 독일 내무부 <위기관리분석> 공식 보고서

“WHO는 범죄 단체다. 과학적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공포와 히스테리를 유발하고 있다.” 2020년 5월, 불가리아 병리학회 회장 스토이안 알렉소브

“정치적 목적으로 만들어진 가짜 팬데믹이다. 건강을 구실로 ‘세계적 독재’를 하고 있다. 수치는 프로토콜 변경을 통해 과장됐다. 양성 중 98%가 건강하다.” 2020년 7월, 스페인 전직을 위한 의사를

“권리를 극도로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만한 과학적으로 타당한 데이터가 없다.” 2020년 3월, 독일 의학자-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 『코로나 팬데믹』 저자 슈사티바티

세계보건기구(WHO)가 정의한 ‘팬데믹(pandemic)’은 “새로운 질병의 전 세계적인 확산”이다. 그러나 감염자 수, 치사율 등의 구체적 기준은 코로나19 팬데믹 선언 직전에도 그리고 현재에도 정해진 것이 없다. 한편, 코로나19 치사율은 보통의 계절 독감과 비슷하고, 사망자도 대부분 기저질환의 환자들인 현실. 그러나 현재까지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1억 명, 사망자는 240만 명’이라는 공포스러운 숫자가 연일 보도되면서, 여론을 형성하고 무리한 정책이 합리화됐다. 그런데 만약 이 모든 숫자들이 조작되었다면?

“허위 양성률 90%다” 잘못된 검사, 부풀려진 확진자

“허위 양성률 90%다.” 2020년 9월, 전 화이자 호흡기 연구 책임자 마이클 이던

“PCR 검사는 핵산의 미세 조각을 증폭시키는 것이지 바이러스를 탐지하는 도구가 아니다.” 19%년, 코로나 진단에 쓰는 PCR 개발로 노벨상을 받은 캐리 멀리스

“PCR 검사는 20배 이상 증폭하면 안 된다. 프랑스는 40~45배를 돌린다.” 2020년 9월, 전 EU 면역전 문가회의 부의장 프랑스 감염공공보건회의 의장 크리스티앙 페론

“뭔가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나는 같은 날, 같은 진단 키트로 네 번의 검사를 받았는데 두 번은 음성, 두 번은 양성 이 나왔다.” 2020년 11월, 테슬라-스페이스X CEO 일론 머스크



“우리는 염소와 파파야 샘플을 채취해 WHO 연구원 몰래 실험실로 가져갔다. 진단 결과는 ‘양성’이었다. 모든 파파야가 격리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우리는 이 테스트에 더러운 공작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2020년 5월, 탄자니아 대통령 존 마구풀리

“지금처럼 PCR 검사로 인플루엔자 확진자를 헤아렸다면 다수는 세상 살기를 포기했을지 모른다. 무증상자의 검사를 중지해야 한다. 언론의 활약이 더해져 ‘혹사병’급으로 인식해버린 대중을 패닉에 빠뜨린다.” 2020년 2월, 경북대의대 교수 이덕희

“나는 우리가 아프지 않다는 것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우리는 이 바이러스의 건강한 보균자일 뿐이다. 그러나 점점 더 많은 검사로 양성률 늘릴 것

이다. 프랑스의 모든 학교에서 매주 약 70만 건의 검사를 하고 있다. 그들이 얻고자 하는 것은 양성률의 꼬리표를 붙여 모두가 ‘아프다고 믿게 만드는 것’이다.” 2020년 8월, 이탈리아 의사 로베르토 페테렐라

“정부가 과학을 조작했다” 사망자, 역사상 최악의 오산

“코로나 사망률은 역사상 최악의 오산이다.” 2020년 8월, 캐나다 공중보건 시스템 대학 박사 로널드 B. 브라운

“코로나19에 대한 공포는 추정 사망률에 기초한다. 이 추정치에 매우 큰 결함이 있다.” 2020년 3월, 스탠포드 의대 교수 제이 바타차리아, 에란 벤데이비드

“정부가 과학을 조작했다. 이탈리아 공중보건 연구소에 따르면 96.3%가 ‘다른 질병’으로 사망했다.” 2020년 4월, 이탈리아 수트리 시장 비토리오 스가르비

코로나 확진자 중 기저질환 없는 사망자 중국 0.9% 2020년 2월, 중국 질병관리본부 미국 1.6% 2020년 6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한국 2.8% 2020년 9월,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유하지만 해도 무조건 사망원인으로 기재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전부 사망자 수에 집계됐다.” 2020년 4월, 미국 의사 애니 부카섹

“CDC(질병통제예방센터)가 2020년 미국 대선 전까지 코로나 사망률을 최소 1,600%까지 불법적으로 부풀렸다.” 2021년 2월, 미국 공중보건 이니셔티브

“환자들은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을 보였다. 이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것이 아니라) 과잉 면역 반응이다.” 2020년 9월, 벨기에 의료인 1,700여명 공개서한

“정부의 통계를 모두 믿는 다 해도 지난 3~5월에 코로나19는 모든 전염 바이러스와 똑같은 흐름을 거처다 사라졌다.” 2020년 9월, 프랑스 국립 건강의학 연구소 역학 연구원 로랑 튀비아나

1단계 통제 마스크

“마스크 효과 없다”던 세계보건 전문가들

“바이러스의 전파를 방지하는 데) 마스크가 효과 있다는 구체적 증거가 없다.” 2020년 3월, WHO

“마스크를 쓰고 돌아다닐 이유가 전혀 없다.” 2020년 3월, 미국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 소장 앤서니 파우치

“건강한 사람은 마스크를 쓸 필요 없다.” 2020년 2월, 유럽 질병예방센터

“일반인이 KF94 마스크를 상시적으로 착용할 필요가 없다.” 2020년 3월, 한국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는 작은 입자의 배출 및 흡입을 막는 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2020년 4월, 미국 전 일리노이대 교수, 호흡기 보호 및 감염병 전문가 리사 브로소

“공공장소에서 지나가는 행인으로부터 이 바이러스를 옮을 가능성은 미미하다.” 2020년 5월, 뉴잉글랜드 의학저널, 하버드대의대 박사 마이클 클롬파스의

“코로나에 감염된 성인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결과, 71%가 질병 발생 전 14일 동안 항상 마스크를 쓰고 다녔다고 답했다.” 2020년 7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논문

“마스크 의무 조치는 1918년 스페인 독감 당시 처음 시행되었다. 다음해 영국 학술지 『랜셋』에서 과학자들은 마스크 착용이 ‘의심스러운 치료법’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도시의 사망률이 더 높았다. 이후 수십 년의 의학적·과학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마스크가 효과가 없다’고 밝혀온 세계 주요 보건기구 및 관련자들. 이들이 말을 바꾸고 전 세계에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기까지 채 몇 달이 걸리지 않았다.

“마스크를 쓰는 게 아이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

“오히려 급성 호흡기 감염의 확산이 마스크 오염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2016년 5월, 캐나다 의학협회 저널

세계의 풍경을 한꺼번에 변모시킨 코로나19. 대표적 상징이 마스크다. 중국은 하루에 1억 개의 마스크를 생산한다. 마스크는 우리 사회의 ‘새로운 출입증’이 되었고, 거리두기는 ‘자발적 행동규범’이 되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이 낮은 조치에 우리는 어느덧 익숙해져버렸고 “바이러스의 잠재적 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겹겹하고 서로를 경계하고 있다. 바이러스의 전염보다 빠른 속도로 ‘공포를 전염시키는’ 수단이 된 마스크와 거리두기. 그러나 미비한 효과에 비해 심각한 피해를 예고하고 있다.

면역력을 약화시키고 인간의 관계를 훼손한다

“외부 환경을 차단하면 면역계는 나약하고 예민해진다. 마스크 쓰기와 거리두기는 평생 쌓아온 면역력을 훼손시켰다. 이렇게 저하된 면역력으로 겨울을 아무 탈 없이 보낼 가능성은 희박하다. 질병관리청은 다시 코로나가 확산되기 시작했다고 말할 것이다. 원인을 감혀 지낸 데서 찾지 않고 바이러스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 결코 백신 정책에서 벗어날 수 없고, 건강한 몸을 되찾지 못할 수도 있다.” 2020년 12월, 『코로나 미스테리』 저자, 한의사 김상수

“마스크는 당신을 고립시켜 통제하려는 또 다른 수단이다. 마스크는 ‘반관계, 반우호’를 의미한다. 웃음을 짓거나 하는 명확한 감정 표현을 금지한다. 우리는 마스크 안에서 ‘납작한’ 의사 소통과 감정에 익숙해진다. 얼굴도 인간성도 없는 익명의 바다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지워버린다.” 2020년 12월, 미국 페더럴리스트 칼럼니스트 스티븐 모라비토

“언어발달이 늦어지는 아이들이 늘고 있다. 선생님과 아이들 모두 마스크를 쓰고 있어 입모양과 표정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2021년 2월, MBC 보도

“우리의 건강은 대부분 스스로 지킬 수 있다. 건강한 음식과 물, 활발한 신체활동,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모임과 만남, 신선한 공기 등을 통해 우리의 면역체계를 강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바로 이런 것들을 금지하고 있다.” 2020년 10월, 독일 신경학자 마가레타 그리츠 브리송

“마스크를 씌으로써 바이러스로부터 보호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바이러스의 크기는 0.8μm인데 일반적인 마스크 구멍의 크기는 80~500μm이다. 인간의 뇌는 산소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한다. 마스크 착용은 산소 부족으로 인한 뇌의 퇴행을 초래한다. 만성적으로 산소 부족에 익숙해져 느끼지 못하더라도, 당신의 뇌에서 퇴행 작용은 점점 진행되고 있다. 또한 신경세포가 분열하지 않게 되며, 손실된 신경세포는 재생되지 않는다. 특히 아이들에게 마스크 착용은 절대 안 될 일이다. 아이들은 모든 장기의 대사가 매우 활발해, 산소 공급이 조금만 제한돼도 치명적이다. 의학적 상식에서 완전히 벗어난 방식을 강요하고 있다.” 2020년 10월, 독일 신경학자 마가레타 그리츠 브리송

“건강한 사람이 마스크를 쓰는 것은 오히려 부작용을 낳는다. 1분 동안 마스크를 쓸 경우 CO2 수치는 기준치의 수 배를 넘는다. 환기가 거의 되지 않는 방에 있는 것과 같다.” 2020년 9월, 벨기에의료인 1,700여명 공개서한

“인간의 코는 계속 환기를 시켜줘야 한다. 코 점막은 계절 및 날씨 변화에 스스로 적응하는데, 계속 마스크를 쓰면 정상 기능이 무력화된다. 실제로 마스크를 오래 쓰면 코의 비강이 비정상적 형태로 변한다. 나중에는 마스크 없이는 온도와 습도에 적응하지 못해 알레르기 비염이 생길 수 있다.” 2020년 12월, 『코로나 미스테리』 저자, 한의사 김상수

“산소 수치가 하락하면 면역력도 손상된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포함한 모든 감염을 쉽게 하는 단계를 만들고 결과를 훨씬 악화시킨다.” 2020년 5월, 미국 신경외과 의사 러셀 블레이크

러시아, 프랑스, 인도, 스페인, 한국, 미국 등 세계 각국의 마스크 착용 및 거리두기 권장 포스터





2단계통제 락다운

충격적으로 미비한 효과 “락다운으로 더 많이 죽었다”

“락다운이 효과가 있다는 증거는 충격적일 정도로 희박하다.” 2020년 12월, 미국경제연구소AIER

“스웨덴은 학교에 가고 상점도 열었다.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다. 락다운을 단행하지 않은 스웨덴에서 100만 명당 564명이 사망했고, 완전한 락다운을 단행한 영국에서 100만 명당 600명이 사망했다.” 2020년 7월, 바이러스 호흡기 감염을 40년간 다뤘은 미국의사다니엘에릭슨

“스웨덴은 학교를 닫지 않았지만 1~16세 아동 200만여 명 중 69명이 코로나에 걸렸고 100% 회복했다. 사망은 0명이었다.” 2021년 2월, 뉴잉글랜드 의학저널,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 박사 조나스 루드비그손의

“중국과 한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바이러스의 성공적 통제에 도움이 됐다고 주장하는 것을 보고 조사를 시작했다. 두 지역 모두 바이러스가 쇠퇴하기 시작한 후 거리두기를 시행했고, 전염병과는 거의 아무런 상관도 없었다. 오히려 거리두기로 인해 집단 면역에 도달하는 것을 막았다.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락다운 때문에 2차 팬데믹을 맞게 되는 것이다.” 2020년 4월, 전 미국 록펠러대학 생물통계학과장 크누트 비트코스키

“세계 각국의 민주적 정권조차 비상권력을 남용하고 헌법적 한계를 무시하면서 개인의 근본 권리를 침해했다. 대부분의 서구 국가는 경기침체에 빠졌다. 그렇다면 락다운이 의도대로 작동하긴 했는가? 유럽 24개국의 코로나 사망률을 비교한 결과, 락다운과 관련이 없었다.” 2020년 8월, 덴마크 오르후스 대학 경제학 교수 크리스티안 비온스코프

“락다운으로 인한 약물과다, 자살, 알코올중독으로 예년보다 3만 명 더 사망했다.” 2021년 1월, 전미경제연구소 “자살상당이 600%, 마약남용이 98% 증가했다. 이로 인한 사망자가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보다 훨씬 많다.” 2020년 10월, 미국 페더럴리스트 보도

전 세계 90여 개국에서 이동제한 및 거리두기가 실시됐다.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인 39억 명이 집에만 머물도록 요청 또는 명령받았다. 지금껏 전쟁의 상황에서도 이렇게 건강한 사람 모두를 격리하는 경우는 없었다. 개인의 경제활동까지 금지한 경우는 없었다. 세계 부채는 사상 최대인 30경 원을 돌파, 그 고통은 다수의 국민이 짊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동, 관계, 상업, 일상 심지어 정보와 의견까지 틀어막은 ‘락다운’ 속에 정치·자본·기술 권력은 무제한적 ‘오픈업’으로 전례 없는 권한과 특수를 누렸다. 과연 누구를 위한 락다운이었을까?

“한국인의 32.4%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부작용을 겪었다.” 2020년 4월, 한국환경보건시민센터

“중국인의 16.5%가 심각한 우울증, 28.8%가 심각한 불안증상, 8.1%가 심각한 스트레스 수준으로 보고됐다.” 2020년 3월, 미국 국립생물정보센터

“이같은 피해는 감기처럼 한때가 아니라 한평생에 영향을 끼친다.” 2020년 5월, 미국의사다니엘에릭슨

“현 상황에서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측면이다. 인간에게 가장 나쁜 건 TV 앞에 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바깥 공기를 쉼 없이 못하면 면역력은 낮아진다. 우리는 밖에서 진화한다.” 2020년 3월, 미국의학박사 스티븐 그리어

최악의 경제 파괴 누가 이익을 봤는가

“락다운이 시행된 2020년 3월부터 2021년 1월까지 미국에서 8,900만 명이 실직했다.” 2021년 2월, 미국노동부 “10만 개의 사업장이 문을 닫았다.” 2020년 9월, 미국 데이터 회사 YELP, 방송사 CNBC 보도

“한국, 지난 1년간 실업자 220만 명으로 역대 최대.” 2021년 1월, 통계청 “폐업한 자영업 점포 23만 개로 하루 약 630곳.” 2021년 1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노동자들이 3조 7천억 달러(약 4천조 원)를 잃는 동안 억만장자들은 3조 9천억 달러(약 4천조 원)를 벌었다.” 2021년 1월, 미국 비즈니스 인사이더 보도

“코로나 팬데믹 이후 ‘Big6’라 불리는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알파벳(구글 모회사),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 기업은 천문학적인 부를 벌어들였다. 2021년 2월 ‘Big6’의 시가총액은 8조 2천억 달러(약 9천조 원)다. 재산이 1천억 달러 이상인 ‘센티빌리어네어(centibillionaire)’라는 신계급이 탄생했다.” 2021년 2월, 영국 가디언 보도

“빈곤층은 10년이 지나도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회복하기 어렵다.” 2021년 1월, 영국 옥스팜 보고서

“공포를 조장하라” “정보를 통제하라”

“뉴욕의 코로나19 락다운은 과학이나 의학 지식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공포에 기초한 대응이다.” 2020년 10월, 유출된 뉴욕 주지사 앤드류 쿠오모 발언

“사태를 필요 이상으로 악화시킨 조치들이 비과학적 공포를 이용한 정치적 계산이었음은 바이든이 취임하자마자 드러났다. 가장 극단적 조치를 시행했던 시카고와 뉴욕 시장은 곧바로 락다운을 완화했다.” 2021년 2월, 미국 오버스탁 설립자 파트너인

“코로나 팬데믹은 패닉 팬데믹이다. 통제자 최우선인 자들이 공포와 공황을 전파하고 있다. 전염병이 시들해지면 락다운 덕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이고, 다음에도 분명 더 엄격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다.” 2020년 3월, 덴마크 의사, 『위험한 제약회사』 저자 피터 피체

“아주 자극적인 문구를 사용함으로써 팬데믹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의 공포를 끌어올려야 한다.” 2020년 3월, 영국 정부 자문기구 회의록

“봉쇄 반대 운동은 ‘잘못된 정보’에 의한 것이고, 집회를 조직하거나 시도하려는 글은 거짓으로 간주, 차단할 것.” 2020년 4월, 페이스북 CEO 마크 Zuckerber

“WHO에 반하는 모든 콘텐츠는 유튜브 정책에 위반되며 ‘의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모든 정보는 삭제될 것.” 2020년 4월, 유튜브 CEO 수잔 보이치키

2020 BigTech 시가총액 증가액



3단계통제 백신

‘승인받지 않은’ 백신을 강제하는 자들

“집단 면역이란 그 집단이 일정 비율 이상 백신을 맞으면 특정 바이러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는 개념이다.” WHO 공식사이트 설명. 2020년 6월 이후 ‘자연면역’에 대한 설명을 없애고 ‘백신을 통한 면역’으로 수정했다.

“70억 명의 건강한 사람이 다 백신을 맞아야만 정상으로 회복될 것.” 2020년 4월, 빌게이츠 “백신이 효과가 있을지는 모른다. 죽음을 피하게 해 줄지, 전염을 막을지 모른다.” 2020년 7월, 빌게이츠

“모두가 백신을 맞기 전까지는 누구도 안전할 수 없다.” 2021년 1월, 세계경제포럼 회장 클라우스 슈밥

“모더나 코로나 백신은 3상 임상시험도 치르지 않았다. 특히 모더나는 2010년 설립 이래 제품을 출시한 적이 없다.” 2020년 12월, 미국 CNN 보도

“모더나, 화이자 백신 ‘긴급사용허가.’ 미국 식품의약국 FDA 공식사이트. 2월 말까지 코로나19 백신 중 ‘정식 승인’을 받은 것은 하나도 없다. 2개가 긴급사용허가를 받았을 뿐이다.

“모든 백신은 안전성 확보를 위해 최소 7~10년의 개발 기간을 요구한다. 코로나 백신은 10개월도 안 돼 만들어졌다. 개발 규정, 제조 과정 규칙을 준수한 백신이 한 개도 없다. 동물 기형 발생 연구를 생략한 채 바로 인간에게 투여됐다.” 2021년 1월, 의사-의료진-시민 16만 명으로 구성된 프랑스 독립과학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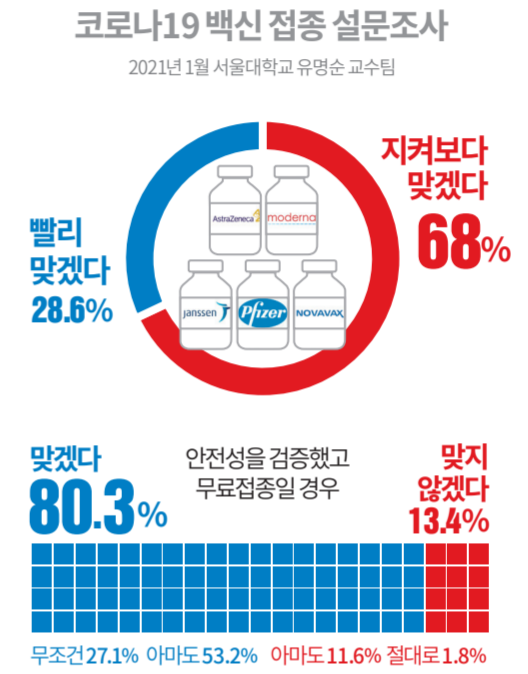
“유럽의약품청은 백신을 빨리 승인하라는 압력을 받아왔다고 전했다.” 2020년 12월, 영국 로이터 보도

“No Vaccine, No Job. 여러 법무법인에 따르면, 다국적 기업에서 ‘직원들의 백신 의무화 계약서’ 작성을 시작했다.” 2021년 2월, 미국 매체 브레이크트

“코로나 백신은 보완제일 뿐이다. 격리, 감시, 접촉 추적, 마스크 등의 조치는 계속될 것이다.” 2020년 11월, WHO 사무총장 테드로스 게브레예수스



백신이 유일한 해결책이자 기적의 치료약처럼 여겨지고 있다. 정부와 언론은 앞다퉈 “백신 확보”를 전할 뿐 안전성 문제 등은 “가짜 뉴스”로 치부되거나 찾아보기조차 어렵다. 코로나19 백신은 인간에 최초 접종되는 ‘유전자 백신’으로, 제조사들은 “부작용 면책권”부터 요구했다. 실제 벨기에 프랑스 이탈리아 스웨덴 미국 등 국민 30% 이상이 “백신을 믿지 못한다”고 답했다. 그런데도 ‘효과가 없으면 미접종자 때문’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외부에서 벌어지는 어떤 사태와는 다른, 내 몸에 주입되는 백신 접종을 앞둔 지금. ‘강제된’ 분위기 속에 멈추고 숙고해야 할 때다.



디신’ 논문에 따르면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 과학자와 미국 바이러스 전공학자들이 코로나 변종 바이러스를 만들어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실험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유사 이래 왜 감기 백신이 만들어지지 않았는가. 감기 바이러스 중 하나인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간 공생 바이러스여서 항원성이 전혀 없다. 백신의 원리는 인간에게 없는 바이러스를 주입해 항체를 형성하는 것인데 코로나 백신은 이 원리에 근본부터 맞지 않다.” 2021년 1월, 전 대한면역학회 회장, 서울대의대 명예교수 이양재

지금껏 없었던 최초의 유전자 백신

“mRNA 백신(모더나/화이자)과 바이러스백터 백신(아스트라제네카/얀센)은 바이러스 유전자를 세포 안으로 넣어, 세포가 직접 바이러스의 단백질을 생산해 면역세포가 반응하게 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RNA는 태생적으로 불안정해서, 우리가 목표했던 반응만 수행하지 않고 다른 RNA나 DNA, 단백질, 정상 대사산물에 달라붙을 수 있다. 그러면 백신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유전자 교란이 일어나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어떤 부작용이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 2020년 12월, 『코로나 미스터리』 저자, 한의사 김상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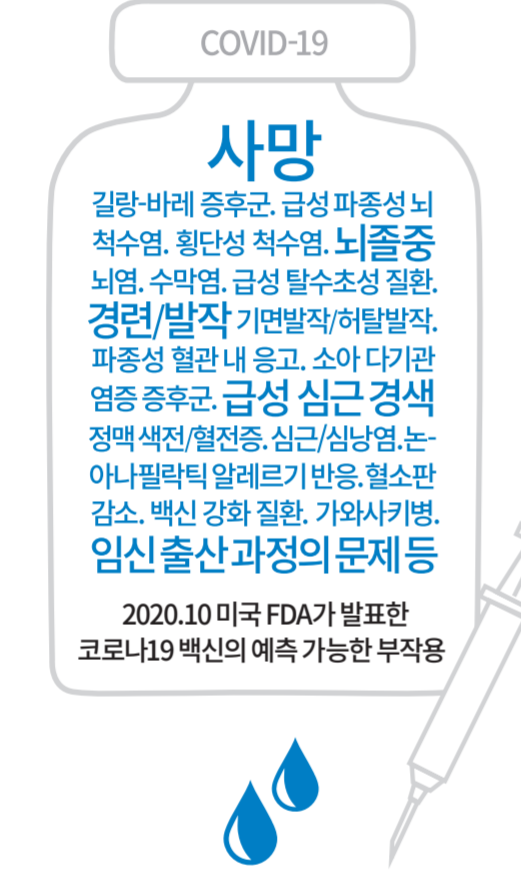
“DNA 백신은 기존 백신과 완전히 다르다. 오히려 유전자 오묘에 가깝다. 바이러스 DNA가 백신을 맞은 사람의 DNA에 통합되어 버린다.” 2015년 3월, 미국 뉴욕타임즈 보도 ‘백신 없는 보호’

“우리는 잠시 멈추고 생각해야 한다. 이 백신은 인류에게 완전히 새로운 것이다. 그런데도 안전 실험과 동물 실험을 건너뛰고 있다. 지난 20년간 비슷한 종류의 백신 개발을 시도했지만 거의 모든 연구에서 실패했기 때문이다. mRNA나 변형 DNA 백신을 주입했을 때 처음에는 괜찮아 보였다. 하지만 다른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에 노출됐을 때 더 많은 폐렴증과 간질환이 발생했고 사망

했다.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나도 백신 제조사들은 “새로운 바이러스의 특성”이라고 말할 것이다. 코로나19 백신은 유전자 변형 생물체에 사용했던 것과 같은 ‘트랜스포션’ 기술을 사용한다. **보통 유전적으로 변형된 동물들은 오래 살지 못한다. 코로나19 백신은 어떤 식으로든 우리의 유전자를 변형시킬 것이다.** 보통 10~15년이 걸릴 연구다.” 2020년 6월, **미국 의사인 캐리 마데이 박사**가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경고하기 위해 만든 긴급 영상**에서

“코로나19 백신으로 형성되는 ‘비중성화 항체’로 인해 바이러스 감염 시 면역과민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실제 임상시험에서 백신을 맞은 고양이는 모두 바이러스에 노출된 후 죽었다. mRNA 기술을 사용한 화이자 백신에 함유된 폴리에틸렌글리콜은, 항체를 가진 70% 사람에게 치명적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인체 임상 기간이 너무 짧아, 수백만 명의 건강한 사람들이 용납할 수 없는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화이자 백신의 긴급 사용을 허가하신 안 된다.” 2020년 12월, **전화이자 호출 기 연구 책임자 마이클 이던, 전 유럽의회 보건위원장 불프강 보더그, 유럽의약품청에 제출한 ‘화이자 백신 임상시험 중단’ 청원서**

“우리는 ‘5세대 전쟁’의 시대에 살고 있다. 전쟁터에서 무기를 들고 싸우는 게 아니라 비밀리에 ‘생물전’을 치르는 것이다. mRNA가 사람의 몸에 주입되면 유전 코드를 변화시켜 변형된 바이러스 버전을 생산한다. 동물 연구 결과를 보면, 사람의 면역체계가 바이러스를 신체의 일부로 착각할 가능성도 있다. mRNA가 정확히 무엇으로 프로그램됐는지 알 방법은 없다. 의사들도 자료를 얻을 수 없다. 이 프로젝트의 맨 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2021년 1월, **미해군 의사로 10년간 근무한 전 미국의 사 및 외과의사 협회 회장 리베르티**



“핵심은 세균으로 인간의 자연 면역체계를 없애, 백신 개발조차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자연 면역체계를 없애려면 세균을 인공으로 만들어야 한다.” 1991년, 미 해군정보부 윌리엄 쿠퍼의 『Behold on a Pale Horse』에서 **로마 클럽 초대 회장 아우렐리오 페체이.**

코로나19 백신 “치명적 부작용 우려된다”

“코로나 백신 부작용, 독감 백신보다 10배 높아.” 2021년 1월, **미국 국립면역호흡기질환센터장** 앤시 매소니에

“대부분의 나라가 **면책 조항이 담긴 표준 계약서로 백신 선구매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 면책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비밀 엄수 약속에 따라 공개하기 힘들다.” 2020.12 **질병관리청 의료안전예방국장** 양동고

“백신 접종률이 가장 높은 미국·영국·이스라엘에서 코로나 감염자 및 사망자가 접종 후 3배 증가했다.” 2021년 1월, **캐나다 독립연구기관/미디어 통찰리자** 송

“백신 제조사의 면책 요구는 한국뿐 아니라 모든 국가에 공통적으로 요청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백신 확보 경쟁이 치열해 매우 특수한 상황이다. **제조사에 평상시와 같이 책임을 묻기에 한계가 있다.**” 2020.12 **중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 이상원

“유전자가 세포 핵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몸이 그와 동일한 모든 병원체를 인식하지 못할 수 있다.” 2013년 3월, **미국 국립생물정보센터 ‘DNA 백신 질병’** 논문

모더나,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안센, 노바백스 등 정부가 협상 중인 백신 제조사 5곳 모두 대량 접종 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보상하고 책임져 달라는 조항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mRNA 독성 및 미토콘드리아 독성으로 인한 여러 질병이 발생했고 일부는 치명적이었다.” 2019년 4월, **미국 국립생물정보센터 ‘백신 기술로서 mRNA 비교’** 논문

“기준에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한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확률이 36% 더 높다.” 2020년 1월, **미 육군 보건감시부 역학조사관** 그레그 G. 오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임상 3상 관련, 추가자료 제출해야.” 2021년 2월, **스위스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승인을 거부**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웨덴 등 65세 이상 접종을 제한했다. 한국 질병관리청 사이트에는 ‘승인현황’만 공개돼 있다.

“적절한 데이터가 없는 그룹에 대해 그 누구도 백신을 권장하도록 허용해선 안 된다.” 2020년 10월, **로타바이러스 백신 공동 개발자이자 미국 면역학자** 폴 오뎐

“코로나19 백신이 DNA를 변형시킨다고 주장하는 모든 콘텐츠 삭제할 것.” 2020년 2월, **페이스북 정책 ‘백신 접종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DNA, RNA를 변형시키는 코로나19 백신의 장기적 부작용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2021년 2월에 **폭로된 페이스북 내부 회의에서 CEO 마크 저커버그** 발언

“미디어는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 정치인들은 부정직하게 행동한다. 이탈리아 보건국장은 의사라는 사실을 부끄러워해야 한다. 그들이 주입하려는 백신은 어떤 것보다 끔찍한 것으로, 우리는 심각하게 아프고 약해질 것이다. 백신을 거부한 사람은 사회에서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여행도 극장도 갈 수도 없고, 미래에는 집 밖을 나갈 수도 없을 것이다.” 2020년 8월, **이탈리아 의사 로베르토 페트리올라**

최고의 백신은 자연 면역

“지금까지 인류는 모든 종류의 호흡기 질환에서 살아남았다. 자연은 우리가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주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2020년 4월, **전 미국 록펠러대학 생물통계학과장** 크누트 비트코스키

“방역시스템은 주판알, 백신은 계산기, 건강한 유기체의 면역시스템은 슈퍼AI다. 그런데 자신의 몸에 장착된 면역시스템의 작동법은 까맣게 잊고, 백신만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버렸다. 건강한 사람의 면역력은 에이즈 바이러스까지 없애버릴 수 있을 만큼 강력하다. 지구 탄생 이래 모든 생명체가 끊임없이 연마해온 엄청난 능력이다. 신중 감염성 질환에 대한 접근 방식은 우리 몸의 면역체계를 강화하면서 공존을 모색하는 것이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그것밖에 답이 없다.” 2020년 10월, **경북대의대교수** 이덕희

“우리 몸은 바이러스를 만나 어떻게 항체를 발전시키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 우리 자신을 강하게 유지하지만 하면 된다.” 2020년 3월, **미국 과학자** 그렉 브레이튼

로버트 케네디 Jr. “빌 게이츠 백신 사업이 초래한 재앙”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는 하버드 법대를 졸업한 환경법 전문 변호사이자 전 미국 대통령 존 F. 케네디의 조카다. 2018년 몬산토 제조제를 쓰다 양에 걸린 드웨인 존슨의 소송을 맡아 세계 최대 농약/GMO 기업을 패소시켰다. 그 외 포드, 엑스모빌 등을 상대로 승소했다. 한편 그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진 ‘백신’과 ‘예방접종’에 강력히 문제제기를 해왔다. 특히 백신방부제에 수은이 함유됐으며, 백신이 자폐증 등 소아신경발달장애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밝혔다. 다음은 케네디 변호사가 2020년 4월, 백신을 코로나19의 유일한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는 빌 게이츠의 백신 사업이 수십 년간 야기시킨 문제를 지적한 글이다. 백신 관련 글을 올려온 그의 SNS 계정은 지난 2월 삭제되었다.



“여러분이 자유의 최전선입니다”

로버트 케네디 Jr. 2020.8.29 베를린 봉쇄반대 집회 연설

“아마 주류 언론은 제가 베를린에 모인 수천 명의 ‘나치들’ 앞에서 연설했다고 보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곳에서 ‘나치즘’에 맞선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 아이들의 건강, 자유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팬데믹을 좋아합니다. 전쟁을 좋아하는 것과 같은 이유지요. **평상시에 결코 받아들일 수 없을 ‘통제의 권한’을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은밀히 복종의 구조를 만들고 강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를 ‘더 위험해 보이게’ 만듭니다. 75년 전, 전범 재판에서 헤르만 괴링은 ‘독일 국민들이 어떻게 나치의 행위를 순순히 따르게 만들었나?’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주 쉬운 일이다. 당신은 사회주의에서도, 민주주의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다. **민중을 노예로 만들기 위해 유일하게 필요한 것은 ‘공포’다.**’ 50년 전쯤, 저의 삼촌 존 F. 케네디는 이 도시에 왔습니다. 당시 베를린이 전체주의에 대항하는 최전선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은 ‘글로벌 전체주의’에 대항하는 최전선입니다. 우리는 오늘 저들에게 자유를 빼앗기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독곡물로부터 지키겠다고 약속합니다.**”

인도 어린이 50만명 소아마비 유발

게이츠는 백신과 연관된 자신의 사업을 위한 ‘전략적 자선가’다. 그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신제품의 기업정책과 마찬가지로 **전 세계 의료정책에 대한 ‘독재적 야망’**을 갖고 있다. 12억 달러로 소아마비 박멸을 약속한 게이츠는 인도 국가자문 위원회를 장악, 5세 미만 모든 아이에게 50종의 백신 중 최대 5개의 접종을 의무화했다. 인도 의사들은 2000~2017년 496,000명에 달한 소아마비의 원인이 **치명적 백신을 접종시킨 ‘게이츠 캠페인’**에 있다고 비난했다. **인도 정부는 2017년 게이츠의 백신 접종을 철회,** 게이츠와 추종자들을 위원회에서 추방했다. **그후 소아마비 발병률은 급격히 떨어졌다.** 2017년 WHO는 **마지막해 소아마비의 폭발적 급증이 주로 백신 군주 때문이라는 사실을 인정**했다. 2018년까지 세계 소아마비 환자 75%는 게이츠 백신과 연관이 있다.

TED 강연에서 백신이 “인구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했다. 2014년 케냐 가톨릭의사회는 **WHO가 파상풍 백신 캠페인으로 케냐 여성 수백만 명을 ‘화학적으로 불임화**시켰다고 비난했다. 여러 독립연구소는 실험한 모든 백신에서 ‘불임 공식’을 발견했다. 혐의를 부인하던 WHO는 마침내 **“10년 이상 불임 백신을 개발해왔다”**고 인정했다.

“우리는 마약 제조자들의 실험대상”

2002년에는 수천 명의 아프리카 아이에게 뇌수막염 예방접종을 강요, 최소 50~500명이 마비됐다. 남아공 매체들은 “우리는 마약 제조자들의 실험대상”이라며 규탄했다. 2017년 모겐센 박사의 연구는 **WHO의 유명한 DTP ‘백신이 질병보다 더 많은 아프리카인을 죽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백신을 접종한 소녀들은 사망률이 10배에 달했다. 게이츠와 WHO는 매년 수백만의 아프리카 어린이에게 **강요한 치명적 백신의 리콜**을 거부했다. (DTP는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혼합 백신으로, 빌 게이츠가 세운 세계백신면역연합(GAVI)에서 공급한다. 71개국 소아표준 접종이며, 한국은 필수 예방접종이다.)

오지 소녀들에 실험 백신, 윤리 위반

2014년 게이츠재단은 GSK(세계 최대 백신기업)와 MERCK(세계 2위 제약회사)가 개발한 실험용 HPV(인유두종) 백신을 **인도 외딴 지역 23,000명의 소녀에게 지원**했다. 약 1,200명이 자가면역 및 출산장애 등 심각한 부작용을 겪었고 7명이 사망했다. **인도 정부는 게이츠가 소녀와 부모들을 압박하고, 동의를 위조하고, 부작용 치료를 거부하는 등 광범위한 윤리적 위반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인도 대법원에서 다루지고 있다.

백신 거부자 감시, 기만적 심리작전

세계 공중보건 관련자들은 게이츠가 깨끗한 물과 위생, 영양, 경제발전을 가로채고 있으며, 백신-“좋은 건강은 주사기에 담겨있을 뿐”-에 기관자원을 전용했다고 비판했다. 게이츠는 WHO, 유니세프, GAVI(세계백신면역연합), PATH(국제보건적정기술기구)를 통제하기 위해 자선사업을 이용하고, 백신 회사와 기관적인 선전을 벌인다. **백신 거부자에 대한 감시 및 심리작전을 펼치는 대규모 제약 네트워크**를 후원하며, 권력과 돈을 이용해 반대 의견을 잠재우고 준수를 강요한다.

아프리카 여성에 ‘화학적 불임화’

2010년 게이츠는 새로운 백신을 통해 인구 감축을 약속한 WHO에 100억 달러를 기부, 한 달 후



①소아마비 경구 백신을 접종하는 아이 ©Flickr. ②백신을 들고 있는 빌 게이츠 ©AP. ③미국의 강제 예방접종 반대 시위 ©Brig News.

코로나 시나리오



예고된 코로나 팬데믹

2017년 1월 “새 행정부(트럼프)는 전염병 도전에 직면할 것이다. 기술적인 발명으로 인해 전 세계 국가경계가 중대한 위협을 겪을 것이다.” 미국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 소장 앤서니 파우치

2018년 4월 “여러분은 매년 백신을 맞아야 한다. 다음 위협은 알려지지 않은 병원체가 될 가능성이 높다. 세계가 전쟁에 대비하는 방식으로 팬데믹에 대비해야 한다.” 빌 게이츠가 이발언 중에 언급한 질병모델링연구소의 시뮬레이션에서 팬데믹 발원지가 중국이었다.

2019년 1-8월 “중국발 호흡기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두 달 만에 1억 1천만 명이 감염되고 50만 명이 사망했다.” 미 국토안보부, 국방부, 안전보장회의를 포함한 연방기관 및 12개 주 기관 연합 훈련, ‘크림슨 전염’ 시뮬레이션

2019년 9월 “팬데믹을 대비해 백신/치료제 개발, 제조 시설을 건설하고 UN은 치명적인 호흡기 병원체를 다루는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빌 게이츠, 앤서니 파우치 등이 속한 WHO 세계준비감시위원회 연례보고서

2019년 10월 “코로나-사스 바이러스로 6,500만 명 사망. 봉쇄, 거리두기, 디지털 감시 등 전통적 수단으로는 막을 수 없다. WHO를 통해 백신을 배포해야 한다. 인구 수만큼 백신을 공급, 제조하기 위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 검열 확대와 인터넷 ‘셧다운’이 필요하다.” 세계경제포럼, 빌&멜린다 게이츠재단, 존스홉킨스 보건센터가 주최한 시뮬레이션 EVENT 201

2019년 12월 “전 세계의 건강을 위해 가장 좋은 구매 중 하나인 백신에, 다음 해가 어떤 의미일지 특히 기대된다.” 빌 게이츠 트윗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수십 년 전부터 지금의 사태를 예측한 이들이 있다. 너무도 상세한 내용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데 “중국발 코로나 바이러스”를 구체적으로 지목, 대응 훈련까지 했다. 백신 여권, 생체칩 등도 이미 준비해온 기술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크다”(프랑스 바이러스 학자·노벨상 수상자 튀크 몽타니, “우한 바이러스의 새로운 유전자 조합은 실험실에서 합성된 것”(미 생물정보학 전문가 제임스 라이언즈와일러) 등의 증언도 끊이지 않고 있다. 바이러스라는 ‘공동의 적’을 앞세워 인류를 몰아가는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

감염자를 분리하는 새로운 신분증, 백신 여권

“백신 여권”이 필요하다. 감염자의 접촉을 정확히 추적하기 위해서는 디지털형이어야 한다. 양성인 사람이 근접하면 알림이 울리는 등 스마트한 도구를 구현해야 한다.” 2020년 4월, 빌 게이츠

“세계 공통 전자인증서 ‘백신 여권’을 개발한다. 직장, 학교, 여행 등 일상으로 돌아가려면 백신 접종 기록 접근 및 제어가 필요하다.” 2021년 1월, 마이크로소프트·오라클 등 IT기업연합체 ‘백신증명이니셔티브’

“완전히 신세계가 될 것이므로 (백신 여권을) 빨리 결정할수록 좋다.” 2021년 1월, 전영국 총리 토니 블레어

“회원국과 전자 백신 증명서 발행 논의 중.” 2020년 12월, WHO “백신 여권 관련 기준 2월 내 수립 계획.” 2021년 1월, EU 집행위 “모든 국제기구와 협력해 코로나 백신 접종 증명서 전자 도입을 검토하라.” 2021년 1월, 미 바이든 행정부 국가전략 보고서 “백신 접종 카드 2월쯤 도입. 소지자는 8시 통행금지에서 면제될 것.” 2021년 1월, 헝가리 총리 실비르 실라르 게르볼라야스 “슈퍼마켓 등에서 백신 여권 사용을 고려 중.” 2021년 2월, 영국 외교부 장관 도미닉 램프

“인권과 자유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다. 강제적이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중국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직장에 출입하려면 ‘녹색’ QR코드를 받아야 하는데 이의를 제기할 방법은 없다. 다른 전염병과 달리 코로나19에 증명서가 필요한 이유도 확인할 수 없다.” 2020년 5월, 하버드대 인권센터 연구원, 데이터보호전문가 엘리자베스 르니에르의

다음은 ‘생체칩’ 변형되는 인간

“코로나 백신은 유전자 변형(reprogramming)을 위해 고안되었다. 백신 ID로 인공지능 인터페이스에 연동될 것이다.” 2020년 6월, 미국의 사캐리마테지

“MIT 연구진은 ‘예방접종 이력’을 피부 밑에 저장, 정보를 스캔할 수 있는 ‘마이크로니들 패치’를 개발했다. 빌&멜린다 게이츠 재단이 연구 자금을 지원했다.” 2019년 12월, MIT 뉴스, 안네트라프톤

“DARPA(미 국방고등연구계획국)는 전염병 발생 탐지/대응, 실시간 인체반응 모니터링을 위해 체내 바이오센서, 뇌내 폐회로 신경시스템 이식을 연구 중이다.” 2017년 9월, DARPA 공식 사이트, 다르파는 인터넷을 개발한 연구기관, 군용으로 개발된 인터넷은 곧 상용화되었다.

“우리는 주사기로 간편하게 몸에 주입하는 바이오센서를 개발 중이다. 이 센서는 콘택트렌즈와 비슷한 물질인 하이드로겔, 피부 표면의 판독기, 신체 정보를 전송하는 소프트웨어로 구성된다. 하이드로겔은 세포의 결합조직(뼈, 혈액)에 자리잡고 주변 모세혈관과 세포의 성장을 유도해 센서를 완전히 감싸도록 한다. DARPA의 지원을 받아 군용으로 실험해왔으며 2021년 FDA 승인을 앞두고 있다.” 2020년 3월, 프로퓨사 CEO 벤황

“프로퓨사 바이오센서 홍보영상에는 실시간 생체 측정, GPS로 위치를 추적하는 모습이 나온다. 코로나19 백신은 이 기술과 통합될 예정인데, 센서 제거 방법에 대한 정보는 없다. ‘몸과 일체되는 센서’다. DARPA는 인공지능과 연결된 ‘슈퍼군인’을 목표로, 뇌와 전자장치 사이에 데이터를 전송하는 ‘신경 이식 접속기’를 개발하고 있다. 국가가 개인의 생화학 정보를 받을 수 있다면 보낼 수도 있다. 생각, 감정, 기능에 영향을 미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원격능력’이 생기는 것이다.” 2020년 10월, 전 NATO 안경군 의료정보장교, 미 육군 병용

“백신을 통해 몸속에 넣고자 하는 것은 DNA 조정물질인데, 실리콘으로 만든 DNA의 세 번째 가닥인 나노밀리미터 크기의 장치를 도금해 디지털 정보를 원활히 받도록 만들어졌다. 한번 주입되면 즉시 DNA가 변형된다. 새로운 형태의 인간 하이브리드가 되는 것이고, 자각하지도 못한 채 독립성을 잃게 될 것이다.” 2014년 1월, 양자물리학/양자컴퓨팅/인공지능/DNA 분야의 연구자 앤서니 패치



예측인가 계획인가, 록펠러재단의 「미래기술과 국제개발을 위한 시나리오」(2010)

1913년 록펠러가문이 설립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비정부조직’ 록펠러재단. 11년 전인 2010년, 록펠러재단이 글로벌비즈니스 네트워크와 공동으로 작성한 54쪽의 보고서에는, 놀랍게도 지금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고스란히 적혀있다. 가상의 미래를 그린 내용은 ‘예측’이 아닌 ‘계획’으로 보여질 정도다. 총 4개의 시나리오 중 해킹 공격 Hack Attack, 현명한 분산 Smart Scramble 시나리오는 지면상 생략했다. 이어 2020년 4월에 펴낸 ‘코로나19 행동계획’도 실었다. 무엇이 실행됐고 무엇이 남았는지 짐작해볼 수 있다.

봉쇄 단계 Lock Step 시나리오

시민반발을 억누를 하향식/독재적 통제 강화

2012년, 수년 동안 예상했던 팬데믹이 마침내 강타했다. 전 세계를 휩쓴 바이러스로 지구 인구의 20%가 감염되고 7개월 만에 800만 명이 사망했다. 팬데믹에 대한 준비가 잘 되어있던 나라도 급속히 압도당했다. 경제는 치명타를 입었다. 사람과 상품의 이동에 급제동이 걸렸고, 관광 등의 산업이 쇠락했으며, 지구적 공급망이 끊겼다. 평소 부산하던 가게와 사무실도 텅 비었다. 그중 몇몇 나라는 잘 대처했다. 특히 중국이. 신속한 강제 검역과 강력한 국경 봉쇄로 다른 나라보다 더 빠르게 바이러스 전파를 막아 수백만의 생명을 구했다.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극단적 조치를 취한 것은 중국만이 아니었다. 전 세계 지도자들이 권위를 행사해 빈틈없는 규칙과 제한을 시행했다. 마스크 의무화, 기차역과 슈퍼마켓 같은 공동공간에서의 체온 측정 등이 시행됐다. 팬데믹이 사라진 후에도 권위적 통제와 시민에 대한 감시는 사라지지 않았을 뿐더러 더욱 강화됐다. 세계 지도자들은 팬데믹, 테러리즘, 환경위기와 빈곤 등 전 지구적 문제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더 큰 권력을 행사했다. 이러한 통제는 초기부터 광범위한 용인과 승인을 얻었다. 시민들은 더 큰 안전과 안정을 위해 주권과 사생활을 자발적으로 포기했다. 예를 들면 모두가 ‘생체ID’ 같은 더 강력한 규제들을 수용했다. 2025년까지 사람들은 하향식 통제에 너무도 익숙해져 정부와 리더들이 자신들을 대신해 선택해줄기를 바랐다.

[사용될 기술] 자국민을 통제, 감시하기 위한 기술이 사용된다. 공항 등 공공장소에서 ‘비사회적 의도’를 가진 사람들의 ‘비정상적 행동’을 감지할 fMRI(뇌스캐너)를 설치한다. 이동이 제한된 사람들을 위해 저렴한 고성능 통신시스템을 개발한다. 개인들은 전염병 공포로 거대 기업이 제공하는 음식/음료 스마트 패키지 상품을 소비한다.

정교한 연대 Clever Together 시나리오

세계적 통치 기구의 등장

CO₂ 급증으로 전 세계의 빠른 행동이 필요해졌다. 중앙집권화된 글로벌 감시체제 및 정부구조가 생겨나 에너지와 질병, 기술까지 관장하게 된다. 국가 단위의 중요성과 힘이 감소하고, 글로벌/지역 단위의 정부가 출현, 국제감독기구 UN이 새로운 권위를 얻고, 아세안·네파드(아프리카산개발협력계획)·아시아개발은행 등이 새로운 주체가 된다. 강력한 ‘동맹’들이 큰 문제를 함께 풀어가면서 전 세계에 의료 테스트나 백신을 값싸게 공급한다. 거대 제약회사들은 ‘열린 혁신’이라는 어젠더 하에 말라리아 같은 질병에 효과적인 수천 개의 약을 공급한다. 진보한 음식 배분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너무 커 감당할 수 없게 된다. 2028년 스마트 성장에도 불구하고 세계가 영원히 급격한 성장을 지원할 수 없음이 분명해진다.

[사용될 기술] 나노센서 및 스마트 네트워크 데이터 기술 비용이 급격히 떨어진다. 정부 자원의 효율적 사용으로 통치를 향상한다. 말라리아 백신을 세계에 배포, 수백만 명의 목숨을 구한다. 저렴한 ‘마인드-컨트롤’ 인공지능이 불구자 80%의 팔다리를 대신한다. 태양열에너지가 농사부터 와이파이 네트워크까지 사용된다. 유연하고 빠른 모바일 결제시스템이 역동적인 경제 성장을 이끈다.

* 록펠러재단은 1913년 설립된 이래 극소수 권력의 비밀모임인 빌더버그그룹, 미국 정치/외교를 좌우해온 외교관계협의회를 만들고 지원해왔다. 또한 의학 분야의 최대 후원자로, 현대 제약산업을 탄생, 백신을 만들고 석유기반 화학제약 치료로 의료 패러다임을 바꿨다. 1918년 록펠러의학연구소는 ‘포트라일리’ 군사기지에서도 미군인에게 세균성 뇌수막염 백신을 실험했다. ‘포트라일리’는 스페인독감의 첫 발생지였다. 1930년대 우생학 연구소에 재정 지원 및 인체 실험을 주도, 나치 이데올로기를 정당화했다. 1940년대에는 임신부에 방사성 철분 투여 실험, 과테말라 매독 실험 등을 벌였다. WHO는 록펠러재단의 국제보건부를 모방해 만들어졌다.

코로나19 행동 계획 (2020)

직장과 지역 사회를 다시 열 실용적 단계

‘코로나 테스트-응급 네트워크’를 만들어 일주일에 100만 명에서 300만 명이 검사받게 한다. 투자 확대 6개월 내 미국에서 매주 3,000만 명이 검사받도록 한다. 지속할 수 없는 섀다운과 위험하고 불확실한 정상 복귀 사이에 선택하는 대신, 백신이나 치료법을 개발할 때까지 검사를 계속한다.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모든 데이터를 모아 팬데믹을 감시할 수 있는 <디지털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 코로나 진단 및 치료 방법을 향상한다. 국가적 시스템을 구축하고 디지털 앱을 통해 완성한다. 코로나19의 전체적 상황 파악, 효과적인 치료 규약 추적, 정보 이용을 위한 데이터 센터를 세운다. 접촉 추적을 위한 <코비드 커뮤니티 헬스케어 단체/군단>을 만든다. 최대 30만 명의 인력을 고용해 테스트를 시행하고 접촉 추적을 할 수 있도록 공격적인 캠페인을 벌여야 한다. 검사야말로 일상 회복의 열쇠임을 강조하며 첫째, 하루 50만 회에서 500만 회까지 확장한다. 둘째,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며 접촉자를 추적한다. 셋째, 광범위한 자원과 정보를 공유하는 데이터 센터 역할을 한다.

록펠러재단의 이 「코로나19 행동계획」 보고서가 발행되고 9개월 뒤 2021년 1월, 빌 게이츠는 “매주 인구의 20%를 테스트할 수 있는 거대 진단 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 mRNA 플랫폼도 필요하다”며 <디지털 데이터 플랫폼>과 <전염병 대응팀> 구축 계획을 발표했다. 2020년 4월, 전 미국 대통령 빌 클린턴과 뉴욕 주지사 앤드류 쿠오모는 “접촉 추적을 위한 <추적자군단> 모집”을 논의했다.



“그레이트리셋”

2020년 3월 WHO는 코로나19를 “팬데믹”으로 선포, 6월 세계경제포럼은 “그레이트 리셋”을 세계가 나아가갈 목표로 선언했다. 이 ‘비선출 기구’들은 인류의 미래를 기획하는 ‘세계지도자’를 자처하며 국경을 넘나드는 정책과 실행을 주도하고 있다. 주류 언론과 소셜미디어 등의 정책을 좌우하며 “잘못된 정보”의 기준을 정하고 그와 다른 목소리는 차단하고 있다. 72년 전에 출간된 ‘빅 브라더’의 미래를 담은 조지 오웰의 『1984』가 2021년 1월,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했다. 어쩌면, 세계 시민들은 무언가 직감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레이트 리셋 거대한 개조, 그 모습은

“코로나는 세계 질서를 영원히 변화시킬 것이다.” 2020년 4월, 전 미국무 장관 헨리 키신저 “코로나로부터의 회복은 ‘지구경제 리셋’을 뜻한다. 사람들이 큰 변화를 받아들일 황금같은 기회다.” 2020년 6월, 영국 왕세자 찰스 왕세자 “팬데믹은 세계를 ‘리셋’할 드문 기회.” 2020년 6월, 세계경제포럼 회장 클라우스 슈밥

(코로나 이후) OECD 국가에서 39%가 재택근무 시행.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여행·관광업 등은 수백만 명 해고. (향후) 노동의 84%가 디지털로. 세계 83%가 원격근무로. 글로벌 사업의 50% 이상이 자동화로. 기존 기술의 35% 폐기. 기존 조직구조의 34% 폐기. 일시적 인력 감축은 인구의 28%. 영구적 인력 감축은 13%.” 2020년 10월, 세계경제포럼 보고서 ‘그레이트리셋 이후의 일자리’

조짐이다. 소규모 은행부터 서서히 파산하기 시작했다. 초인플레이션의 증상이다. 코로나 증상만 따질 게 아니다.” 2021년 2월, 제3경영연구소장 신형식

“글로벌 엘리트층이 설계한 ‘그레이트 리셋’이라는 전 지구적 기획이 진행되고 있다. 이들은 백신 강제 접종, 백신 여권, 디지털 신분증을 통해 세계 인구를 추적하려 한다. 위기를 조작하며 자유를 가혹히 제한하는 조치를 합법화하고 있다. 통제할 수 없는 권력의 불온한 서막이다.” 2020년 10월, 전 미국 주재 교황 대사, 카를로 비가노 대주교



시작은 세계 단일ID

“2030년까지 지구상 전 인구에게 출생 신고 및 법적 신분증을 발급한다.” 2015년, UN ‘어젠다2030’

“자기 증명 수단이 부족한 세계 11억 명에게 디지털ID가 필요하다. 데이터가 분리되면 제어력이 떨어지므로 온라인뱅킹, 소셜미디어 등 모두 연결해야 한다. ID2020은 백신면역연합·마이크로소프트·액센츄어·록펠러재단과 공동 진행된다.” 2016년, UN ‘어젠다2030’을 위해 설립된 ID2020 사이트

“나는 더 이상 ID2020의 사명이 무엇인지 자신 있게 말할 수 없게 되었다. 채택되지 않은 기술 활용을 열망하는 영리기업들이 주도하고 있다. 그들은 초국가 신분증 외에는 관심이 없어 보인다.” 2020년 5월, ID2020의 기술자문을 사임한 허버드대 인권센터 연구원, 데이터보호 전문가 엘리자베스 르니에르

“기술 준비는 거의 끝났다. ‘단일 온라인 신원 인증 시스템’에 건강 정보를 결합하지만 하면 된다. 코로나 여권은 단지 백신 인증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2021년 2월, IBM 덴마크 책임자 마틴 레나트

우리는 이미 감시 통제에 익숙해졌다

“가정에서 아플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찾아 안전하고 존엄한 방식으로 제거하고 격리해야 한다. 이를 위해 건강상태를 상시 추적할 수단이 필요하다.” 2020년 3월, WHO 비상사태책임자 마이클 라이언

“백신 전까지 접촉 추적만이 유일한 방법이다. 이에 1천억 달러의 보조금을 마련한다.” 2020년 5월, 미 하원에 ‘코로나19 추적법안’(H.R.6666)을 발의한 버버리 의원

“곧 통과시킬 신기술이 있다. 예컨대 서로 너무 접근하면 경고하는 센서를 부착하는 것이다. 아이들에게 먼저 시작하면 좋을 것 같다. 가능할지 조사 중이다.” 2020년 5월, 이스라엘 총리 벤자민 네타냐후

“전 세계 61% 국가가 불법적, 무기력적, 불필요한 코로나 관련 조치로 민주주의를 위반했다. 대다수 국가가 이동과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표현의 자유다. 50% 넘는 국가가 ‘역정보’를 예방한다는 명목으로 정보를 검열했다.” 2020년 12월, 스웨덴 국제민주선거지원연구소

“고용주가 감시 소프트웨어를 설치했다면 다시 제거할 가능성은 없다.” 2020년 3월, NPR 뉴스 바비 앨런

“지금의 공포는 공황 상태를 통해 재정적·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이들에 의해 크게 과장됐다. 사람들은 두려울 때 기꺼이 자유를 포기한다.” 2020년 3월, 전 미 하원의원, 평화변영연구소 설립자 론 폴

“억압의 구조는 이미 만들어지고 있다. 정부는 전례 없는 방식으로 우리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두려움은 감시 조치를 늘리는 도구이며, 9.11 이후 그랬듯 아주 오래 지속될 것이다.” 2020년 4월, 전 미국 국가안전보장국(NSA) 선임 자료관 에드워드 스노든

“역사는 위협이 끝난다고 해서 규제들이 완화되지 않을 것임을 보여준다.” 2020년 4월, 포린폴리시

“봉쇄 기간 중 받아들여야 했던 많은 기술적 행동에 익숙해질 것이다. ‘비대면 경제’의 추진을 막는 어떤 제약도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강력하게 자동화 행진 속도를 끌어올릴 것이다. 로봇과 AI가 ‘자연적으로’ 대안이 되었다.” 2021년 출간된 『위대한 리셋』 중, 세계경제포럼 회장 클라우스 슈밥

“이것은 더 이상 COVID에 관한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의 리셋에 관한 것이며, 사람들이 ‘거대한 리셋’을 원하도록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2020년 8월, 미국 매체 더 랜턴 편집장 마이클 매키

“이들이 말하는 ‘그레이트 리셋’은 실물경제 파괴를 통한 노동·유통·자원의 재배치, 산업자본을 금융자본으로 재배치, 디지털 결계와 화폐 단일화, 인간과 기계를 호환하는 트랜스휴머니즘 등이다. 소규모 자영업이 감자 하나 제대로 심지 못하게 만드는 금융자본가들의 ‘글로벌 구조조정’이 그 목표다. 대다수 국가가 IMF 채무국이다. 주요 선진국은 백신 확보 경쟁과 지원금으로 막대한 지출을 하고 있다. 미국 재정적자가 2019년 1조에서 2020년 3조 달러가 됐다. 실업은 장기화될



통제에 맞서다



“마스크를 벗자” “문을 열자”

“마스크는 우리를 노예로 길들인다.” 2020년 5월 부터 ‘마스크 착용 및 락다운 반대’ 시위를 이끈 독일 국민들

“공포야말로 강력한 바이러시다.” 2020년 8월, 스페인 정부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반대하는 집회에서

“코로나-1984. 의료 독재를 끝내라. 방역 독재를 멈춰라!” 2020년 9월, 영국 ‘락다운 반대’ 집회에서

“우리에겐 신체의 자유, 일하고 여행하고 참여할 자유가 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숨 쉴 자유가 있다.” 2021년 1월 8일, 비엔나 의과대학 학장 안드레아스 손닉스 등 의사, 과학자, 변호사, 예술가로 구성된 ‘오스트리아 코로나 조사 위원회’가 일간지에 게재한 공개서한. 이후 16일, 5만 명의 시민이 시위에 나섰다. 경찰들이 헬멧을 벗고 함께 행진하기도 했다.

“사람이 자유롭게 일할 수 없는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2020년 10월 이후 야간통행이 금지된 벨기에에서

“나는 오픈한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락다운 조치가 시행된 이탈리아에서는 2021년 1월 7일부터 5만여 명의 식당 주인들이 ‘첫 다운 반대 운동’을 시작했다. 문을 연 식당에 경찰이 들어닥쳤을 때, 손님들이 한목소리로 외쳤다. “우리는 오픈한다!”

프랑스 등 10여 개국 통행금지. 홍콩, 입국자에 전자팔찌 의무화. 호주, 격리자 집에 정부 감시 기기 설치. 폴란드, 모바일 앱으로 얼굴인식과 위치추적. 스위스, 100m 내 20명 이상 집합시 통신사가 정부에 보고. 거의 모든 국가가 이같은 인권 침해 조치를 시행 중이다. 이에 네덜란드·덴마크·독일·루마니아·벨기에·불가리아·세르비아·스위스·스페인·영국·오스트리아·이탈리아·폴란드·프랑스·헝가리·미국·캐나다·브라질·케냐·레바논·이라크·이스라엘·인도·호주 등의 국민들이 시위에 나섰다. 공통된 외침은 ‘거짓을 멈춰라’, ‘공포가 아닌 자유를’이었다.

“아이들에게서 배우고 놀고 만나는 어린 시절을 빼앗지 말라.” 2020년 5월, 미국 ‘락다운 반대’ 집회에서

“공공예배를 범죄화했으며 이는 헌법에 적시된 종교의 자유에 위배된다.” 2021년 1월, 교회 폐쇄에 맞서 정부를 고소한 스코틀랜드 27개 교회 지도자 공개서한

“세계 시민을 기망하고 조종했다.” 2020년 10월, ‘독일 코로나 조사위원회’는 반인권범죄로 WHO를 고발하기로 했다.

내 몸에 대한 자율권 백신 거부

“백신 강제는 2차대전 이래, 개인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가장 극단적인 결정이다.” 덴마크에서는 정부가 접종 대상을 결정, 거부할 경우 벌금 및 구류하는 입법에 대해 고려했으나, 2020년 11월부터 이어진 격렬한 시위로 결국 취소됐다.

“시민들에게 백신 접종이 강제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야 한다. 본인이 원치 않는다면 정치적, 사회적 혹은 어떠한 이유로도 압력을 받아서는 안 된다. 또한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이 차별 받아서는 안 된다.” 2021년 1월 27일, EU 유럽의회는 ‘코로나19 백신의 윤리적 법적 실제적 고려’ 결의안을 압도적 표차(찬성 115, 반대 2, 기권 13)로 통과시켰다.

“코로나19 실험용 백신 의무접종에 반대한다.” 2020년 11월, 미국 최대 간호사 노동조합은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임상실험에 대한 세부 자료가 공개될 때까지 어떤 백신도 의무접종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2021년 1월 LA에서는 백신 반대 시위로 코로나19 백신접종소가 1시간 가량 폐쇄됐다.

한국, 코로나19 관련 주요 법안

행정명령 [마스크 실내의 의무착용] 서울경기인천전북전남대구대전광주충북충남경북부산울산강원 세종 제주 등. [사회적 거리두기] 2020.3.22 첫 시행. 중앙부처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행정명령을 내린 첫 사례. 12월 1일부터 수도권에 적용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1월 전국으로 확대. 위반 시 벌금 7~12월 ‘방역수칙 위반 신고포상제’. 6만4천여건 접수. [진단검사] 2021.1.25 전국 최초로 경북 포항시 ‘가구당 1명 무조건 진단검사’ 명령. 제정 [격리] 감염병 지역을 제류·경유한 자에 격리·조사·진찰 등을 조치할

수 있고, 거부시 1년 이하 징역/1천만 원 이하 벌금. [개인정보 이용]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해 환자·의심자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의료정보, 출입국 기록, CCTV, 카드사용, 통신내역 등 개인정보를 기관에 요청할 수 있음. [사업장 제한] 감염병 위험이 높은 사업장의 영업제한·정지·폐쇄를 명할 수 있음. [출입국 생체정보시스템] 지문·얼굴·홍채·손바닥 정맥 등 생체정보를 이용하는 ‘One-ID 통합관리시스템’ 도입. 발의 (2.19 기준) [백신 의무 접종] 모든 국민은 의무적으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해야 함. 국가는 접종 내역을 주민등록증, 여권 등에 기록. (홍준표 주수석) [의약품 검사 면제] 긴급히 공급하는 백신·치료제의 경우 표시기재

및 품질검사 의무 면제. (신원영 이하 모두 더불어민주당) [용어 순화] ‘필수예방접종’에 강제성이 느껴지므로 ‘국가예방접종’으로 변경. (최혜영) [테러 규정] 감염병 검사, 치료 거부 시 ‘테러’로 규정. (이병환) [검사 거부 처벌] 질병관리청장·지자체장 등의 진단검사 요청에 불응 시 처벌할 수 있음. (정청래) [모바일 앱 의무화] 자가격리 시 이탈 여부를 확인할 앱 설치, 사용 의무화. (서영석) [집회 정역형] 집합행위 금지를 위반한 자는 징역 형 수준으로 제고. (전용기) [원격 교육] 교육부 지침이 사정이 없는 한 원격교육 실시. (박찬대) [개인방출 제한] 불법정보를 유통하는 인터넷개인방송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엄격히 제한하도록 함. (양향자)

백신 ‘강제접종’ 반대서명

“인체에 영구적 손상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코로나19 백신 강제접종은 헌법에 보장된 ‘신체를 구속당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행위다. 우리 국민은 원치 않는 행위를 강요당하지 않을 자유가 있다.” 2021.2.15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을 우려하는 의료인 연합 성명 중 endpandemic.kr 서명하기



코로나19 전문가 특별인터뷰 | 김상수 한의사

“코로나19는 결코 위험한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1년.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유령은 우리 삶을 공포와 단절로 몰아 왔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의문조차 제기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나눔문화는 코로나19의 진실에 대해 말해줄 전문가를 찾아왔습니다. 김상수 원장(소아랑 한의원)은 코로나 초기부터 “흔한 감기 바이러스다”, “검사 방법에 문제가 있다”, “백신으로 코로나를 예방할 수 없다”라는 등 소신 발언을 이어왔으며 최근 「코로나19 백신 의무접종 반대 의료인 성명」을 주도했습니다. 10년 이상 호흡기 질환을 전문으로 양방·한방을 두루 경험한 김 원장은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 발생 때 적극적으로 문제제기 하지 않은 것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합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하자 국내외 통계와 언론 보도를 분석·검증하고, 수천 건의 논문과 임상 경험을 토대로 유튜브 채널(소아랑 TV)을 통해 진실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2월에는 서울대학교에서 주최한 코로나19 강연회에 초청받아 발표했으며, 『코로나 미스터리』라는 책을 발간해 건강 분야 베스트셀러에 올랐습니다. 코로나 이후, 몸에 열이 있다는 이유로 병원 문턱에서 거절당한 아이들을 치료하고 있는 김 원장은 자신의 책과 방송을 통해 “코로나에 대한 공포심이 사라지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을 들을 때가 가장 보람있다고 합니다. 김상수 원장의 인터뷰를 나눕니다. 인터뷰! 임소희 이사장, 신소현 연구원

운영하는 것이었는데 핵심이 되는 영상들은 여지없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정부도 의료인도 고생이 많다는 것을 압니다. 국민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자유를 포기하고 방역수칙을 지킨 이유는 나와 가족의 건강을 지키고 이 사태가 진정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였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은 혼란과 고통이 의미 있으려면 ‘이 바이러스가 정말로 위험하고 치명적’이라는 전제하에 일어나야 하는 일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코로나19는 어떤 바이러스입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는 1년 내내 우리 주변을 맴도는 바이러스인데 코로나19는 5~10% 정도 변이

원래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류와 공생해왔으며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 중 두 번째로 흔한 바이러스입니다

코로나19에 대해 ‘다른 목소리’를 낸 이유가 있나요?

호흡기 질환을 진료해온 저로서는 이 사태에 의문을 품는 환자들과 국민들께 명확한 답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코로나19의 실체를 명확히 밝히고자 전 세계 의과대학 교과서, 병리학, 감염학, 내과학 등의 고전과 신뢰도 높은 해외 논문 등을 파고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벌어진 일들은 전혀 과학적이지도 의학적이지도 않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현재 코로나19에 대한 판단은 사실과 가치의 구분 없이 가치 ‘판단’에 치우쳐 있습니다. 전문가들과 언론이 올바른 사실을 전해 주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를 포함한 전문가들의 잘못이 큼니다. 저는 그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싶었습니다. 진실을 알리고자 언론과 의료계, 국회의 문을 두드렸으나 한 명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유튜브 채널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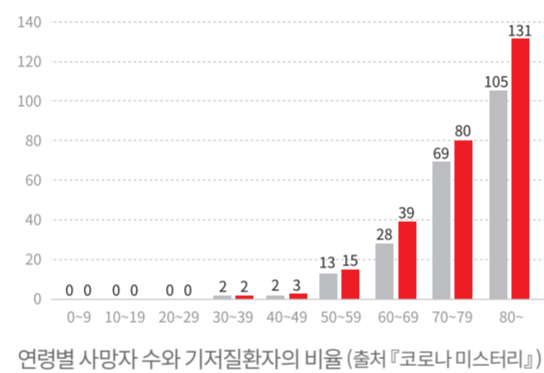
된 형태로 나타난 거죠. 사스, 메르스 등도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평생 50번의 감기에 걸렸다면 10번 이상은 코로나에 걸렸다가 회복했다고 보면 됩니다. 건강하다면 1주 정도면 가볍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몸 밖에서는 바람에 떠다니는 먼지와 같아서 죽일 수도 없으니 “감기에는 약이 없다”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에도 코로나19가 위험하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공포는 부정확한 정보를 믿을 때 생깁니다. 코로나19가 위험하다는 근거가 네 가지 정도 있습니다. 전파력, 치명율, 폐렴의 유발, 후유증입니다. 감염병의 전파속도를 가늠하는 지표로 ‘감염 재생산지수’가 있습니다. 한 명의 감염자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질병을 옮기는지 알 수 있는데, 홍역 수두 등 다른 질환과 비교하면 코로나19는 결코 빠르다고 볼 수 없죠. 둘째, ‘고령자에게 치명

적인가’입니다. 현재 코로나19 치명율은 전 세계적으로는 2.18%, 한국은 1.82%입니다. 사망자 기록을 확인해보니 평균연령이 78세 이상이고 대부분 심혈관 질환, 당뇨, 암 등 중증 환자가 많았습니다. 즉 사망자의 대부분이 기저질환자였다는 것인데, 자료를 조사해보니 미국의 경우는 98.1%, 이탈리아는 96.1% 우리나라는 작년 5월 기준 81%가 고령의 기저질환자였습니다.

사망 원인으로 폐 질환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코로나19에 의한 사망’이라면 사망 직전 급성 호흡곤란을 호소하거나 폐에 물이 차는 ‘확산성



폐포 손상’이나 ‘거대 세포’가 발견되어야 합니다. 사스, 메르스, 코로나19 사망자 부검 소견에서 공통적으로 나온 증상입니다. 폐포 손상은 우리 몸이 비정상적인 면역반응을 보일 때 나타납니다. 면역이 억제되거나 항진된 사람들, 그러니까 면역기능에 이상이 생긴 환자들에게서 주로 나타납니다. 이 증상은 1918년 스페인독감 때부터 나타났는데 홍콩독감, 신종플루도 부검 소견이 같습니다. 사망에 이르게 한 원인은 하나인데 바이러스는 매번 이름을 바꿉니다.

그럼 직접적 사망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각각의 시대상에 따라 원인은 여러 가지로 뽑을 수 있습니다. 단, 근대에 들어서는 팬데믹이 있을 때마다 공통적으로 사용되었던 약물들이 있죠. 이 약물들의 연관성도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스 이후 전염병이 돌 때마다 공통적으로 사용된 약물은 소염제와 인터페론, 그리고 스테로이드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질병이 아닌 약물이 환자의 생명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죠. 이렇듯 사망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따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의학계



약품 정보, 부작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식약처 <의약품 안전나라>

는 이제껏 그 어떤 세균이나 바이러스도 소멸시킨 경험이 없습니다. 어떤 항생제와 백신으로도 박멸할 수 없습니다. 어찌보면 우리가 가장 손쉽게 제거할 수 있는 질병의 원인은 오남용되고 있는 약물일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후유증이라며 심각하게 보도됩니다

호흡기 바이러스는 다른 장기에 침범할 수는 있어도 쉽게 질병을 일으키지는 못합니다. 저는 환자들이 호소하는 후유증과 환자들에게 사용한 약물의 부작용을 비교해봤는데, 일정부분 연관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후유증이 모두 약물 부작용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약물 후유증과 질병의 후유증은 구별해야죠. 많은 분들이 후각의 마비를 말씀하시는데 특정 약물의 부작용에도 후각마비가 있고 장시간의 마스크 착용으로도 일시적인 후각마비는 올 수 있습니다.

‘확진자’, ‘무증상 감염자’, ‘완치자’는 모두 잘못된 말이라고 지적하셨는데 어떻게 바로잡아야 할까요?

‘확진자’라는 말은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말입니다. 정확한 말은 ‘건강 보건자’ 정도겠죠. 부정확한 PCR검사의 결과로 건강한 사람들을 가둬놓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PCR검사는 바이러스의 유전자 조각들을 증폭시켜 해당 바이러스의 흔적이 있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검사법인데 바이러스의 죽은 찌꺼기만 있어도 양성 판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질병청은 아직 권고를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최근 WHO는 확진자 검사법으로 사용해온 PCR법을 앞으로는 검사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라고 권고하기도 했죠. 가장 충격적인 신조어는 ‘무증상 감염자’입니다. ‘증상’과 ‘감염’은 엄연히 다릅니다. ‘특별한 증상 없이 전염성 물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우리 몸

속에는 39조 개의 세균과 380조의 바이러스가 공존합니다. 세계 인구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어머니 자궁을 벗어나는 순간, 무증상 감염자입니다. ‘완치자’라는 말 또한 틀린 말입니다. 의료계는 처음부터 “코로나19에 치료제는 없다”라고 말했는데 완치자라요? 세계적으로도 ‘회복자 recovered people’라고 부릅니다.

확진과 격리를 겪은 분들의 고통도 큼니다

지금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뭉쓸 병을 옮기지 않을까?’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며 ‘사회적 거리’보다 더 먼 ‘마음의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나도 걸렸을까?’ 자신조차 의심하며 내가 먼

무증상 감염자 확진자, 완치자는 잘못된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태어나는 순간 무증상 감염자입니다

저 상대를 피해버리는 신세까지도 기꺼이 받아들여지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는 환자는 위로와 도움의 대상이었죠. 그런데 신종플루 때부터 회피의 대상이 됐습니다. 사람을 ‘질병을 옮기는 숙주’로 간주하고 ‘타인을 위협하는 가해자’로 만들어, 동선을 파악하고 접촉자를 확인하는 등 사생활과 자유를 스스로 포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호흡기 바이러스는 작은 입자 물방울인 ‘에어로졸’과 큰 입자 물방울인 ‘비말飛沫’ 그리고 ‘접촉’ 이렇게 세 가지로 전파가 됩니다. 큰 비말은 2미터 이내에서 바닥에 떨어지니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로 큰 비말은 피할 수 있는데 그렇게 큰 비말은 호흡기 질병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폐렴은 아주 작은 에어로졸로만 전파될 수 있는데 이것은 너무 작아 바닥에 떨어지지 않으므로 사회적 거리두기로는 피할 수가 없죠. 술 쉴 때 나오는 에어로졸의

80~90%는 크기가 1µm미만이라서 방독면을 써도 막을 수 없습니다.

마스크는 감염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는 겁니까?

바이러스를 마스크로 걸러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초미세먼지보다 훨씬 작은 나노 입자이기 때문이죠. 마스크가 겨울철 호흡기 질병을 감소시킨 데에 일조한 면은 있지만, 바이러스를 걸러냈기 때문이 아니라 차고 건조한 공기를 막아 주어 바이러스 증식 환경을 줄였기 때문입니다. 만성 폐질환, 뇌혈관, 심혈관 질환 등이 있거나 임산부, 영유아 등은 장시간 사용하면 건강에 직접적인 해를 끼칠 수 있으니 마스크 착용에 주의하기를 해야 합니다.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데 기대와 불안이 공존합니다

적어도 백신 안에 뭐가 들어 있는지는 확인해야죠. 과연 백신을 맞을 질병인지도 생각해야 하고요. 신종플루 이전에는 독감 백신이 무료가 아



김상수 원장이 운영 중인 유튜브 채널(소아랑 TV), 철저히 준비된 원고와 충실한 자료 등을 토대로 국내외 고정 시청자들이 빠르게 들고 있다.

니었습니다. 그래서 백신을 맞고도 감기에 걸리면 의사들이 미안해했어요. 효과가 없다는 걸 아니까. 의사도 강권하지 않는데 지금은 백신이 무료가 되니까 모두 맞는 분위기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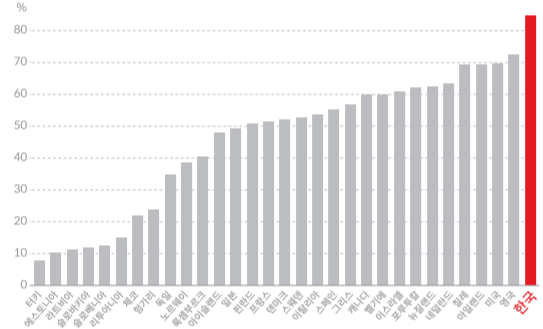
백신의 실효성, 안전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정상적인 개발 기간을 거친 백신조차 93%가 실패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그런데 코로나19 백신은 1년 만에 개발되었습니다. 지난해 10월 미국 식품의약품FDA에서 코로나19 백신을 맞았을 때 예상되는 부작용을 발표했는데 사망을 필두로 뇌, 척수 및 신경계통 손상 등 심각하지 않은 질병이 없습니다. ‘사망’을 예상한 부작용 발표는 놀라웠습니다.



5시간 가까이 이어진 인터뷰 모습, 김상수 원장(위)과 임소희 이사장(좌)

집단면역을 위해 접종에 협조하지는 분위기입니다
 코로나와 인플루엔자 같은 바이러스들은 쉽게 변이를 일으킵니다. 변이는 감염된 사람이 이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을 때, 바이러스가 이를 피하기 위해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항체를 가질수록 바이러스의 변이는 더 빨라진다는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백신 접종률이 높을수록 바이러스의 변이도 빨라진다는 겁니다.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질병은 모든 백신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감염 후에도 항체 생성이 안 되는 환자군이 있습니다. 질병에 걸려도 생기지 않던 항체가 백신을 맞으면 생긴다는 것은 무모한 도전입니다. 그럼에도 백신



2015~2019년 OECD 국가 플루 백신 접종률, 한국이 1등으로 80% 이상

을 개발한다면 전제조건이 있는데 첫째, 질병을 막을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항체가 생성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백신에는 그 기준이 확실치 않습니다. 목표점이 없는데 효과를 어떻게 검증할 수 있을까? 둘째, 접종 후에 항체 생성 과정이 질병에 걸려 항체를 만드는 과정보다 수월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접종 후에 장애가 없어야 하는데 코로나19 백신은 한 번도 상용화된 적이 없는 mRNA 방식으로 설계된 인류 최초의 백신입니다. 장기적인 안전성이 전혀 확보되지 않은 백신이죠.

국내에 들어온 백신 상황은 어떻습니까?
 모더나, 노바백스 제품이 제일 많고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안센 순서입니다. 모더나 백신을 주목해 보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이상해요. 2010년 창업한 이래 한 번도 제품을 생산한 적이 없는데 기다렸다는 듯이 백신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가장 빨리 접종한다고 하는데 ‘황당성 척수염’이라는 무서운 부작용이 발생해 임상실험이 중단된 적이 있는 제품이죠. 모더나, 화이자 제품과 함께 미국 FDA 승인도 못 받았습니다. 스위스에서는 사용 승인 자체가 중단됐고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등

에서는 ‘65세 이상의 고령자에게 접종을 권고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8세 이하 아이들이 접종에서 제외된 이유가 있나?
 언론에서 “아이들은 코로나에 강하다”라고 했는데 그럼 왜 학교도 못 가게 하고 밖에서 놀지도 못하게 합니까? 일반적인 통계로는 0~9세의 아이들이 호흡기 질환에 가장 약합니다. 어떻게 코로나19만 아이들을 피해 간다고 할까요? 아마 성장기의 아이들에게 유전자 백신이 위험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때문에 백신 제조사에서 19세 미만의 아이들에게 실험 자체를 많이 하지 않았죠.

실효성도 안전성도 없는 백신에 의지하는 대신 자유롭게 활동하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최고의 천연 백신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의무접종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홍준표 의원 등 국회의원 17명이 ‘코로나19 퇴치를 위해 백신 의무접종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모든 국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무적으로 코로나19 백신의 접종을 맞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행동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에, 뜻있는 의사들과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을 우려하는 의료인 연합(가칭)>을 조직해서 2월 15일에 성명을 냈습니다. 20여 명이 함께하였고 숫자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소수지만 의료인으로서 국민들께 최소한의 도리를 한 것 같습니다. 서명도 받고 있는데 현재까지 2만 1천 명이 참여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코로나 19 사태를 끝낼 수 있을까요?
 최근 발생한 일련의 팬데믹이 PCR검사와 함께 시작하고 PCR검사가 중단되면 팬데믹도 종료되었습니다. 메르스 이전에도 감기, 폐렴, 간질성 폐렴 환자가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메르스가 발견되자 ‘감기 환자’는 메르스 경증 환자가 되고, ‘폐렴 환자’는 메르스 중등도 환자가 되고, ‘간질성 폐렴 환자’는 메르스 중증 환자가 되었습니다. 사태가 끝나자 다시 감기, 폐렴, 간질성 폐렴 환자

로 남게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등장하자 코로나 19 경증, 코로나19 중등도, 코로나19 중증환자로 돌변했습니다. 바이러스 이름을 붙인 병명만 다를 뿐입니다. 종식되었다는 사스, 메르스 바이러스는 사라졌을까요? 일부러 찾지 않을 뿐이지요. 질병관리청이 해야 할 일은 아프지도 않은 감염자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위중한 환자가 나오지 않는 것을 근거로 ‘이 질병은 우리를 위협할 만큼 치명적이지 않다’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이 일을 마무리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이제라도 우리 삶을 되돌리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호흡기학, 면역학 등의 국내외 의학 전문가가 백곡한 진료실의 김원장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당부 말씀 부탁드립니다
 질병의 3대 요소는 환경, 숙주, 항원(병원체)이며 이 세 가지 요인이 교집합을 이루는 구역에서 질병은 발생합니다. 즉 몸 상태나 환경이 안 좋을 때 감염되면 질병이 생기고, 하나라도 부족하면 질병이 되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의학이 산업화되면서 세균 등의 항원을 찾고 없는데만 집착하면서 항생제, 항바이러스제를 남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치료는 병원체에 저항하는 우리의 면역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백신보다 강력한 내 몸의 면역기능을 지키면 코로나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라도 활동은 물론이고 여행도 자유롭게 허용해야 합니다.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질병에 대해 어떤 인공 백신도 대체할 수 없는 ‘천연 백신’이 되기 때문입니다. 정체불명의 약물이 아니라 자연 속에서의 활동, 사람들과 어울리며 자유를 누리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자신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백신입니다.

베스트 셀러

『**코로나 미스터리**』 김성수 지음

팩트와 수치로 분석한 코로나19 이해와 진실
 “이 책은 과정되거나 왜곡된 코로나19에 대한 사실을 조목조목 짚어갑니다. 코로나19에 대해 공포심이나 의무심을 가졌다면 일독을 권합니다”
 유대우 前서울대의과대학 교수

코로나19와 살아온 1년, 회원님들의 이야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 삶을 잠식했던 지난 1년. 우리 아이들과 각자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답답하고 격정되는 이야기, 언제든 편히 나누어주세요.

이현지 회원심심김팀장

마스크가 피부가 된 우리 아이들

“아이들이 마스크에 더 익숙해요. 미세먼지 때문에 아기 때부터 썼으니까요. 7살 아들이 놀이터에서 놀다가 친구가 마스크를 던져 끌어줬는데 ‘나 코로나 걸린다, 빨리 새 마스크 달라’고 울음을 터트려서 충격받았어요.” 정미진님,주부

“초등학교 6학년 첫째는 밖에 안 나가려고 해요. ‘코로나는 무서운 것이라 밖에 돌아다니면 안 된다’고 자기검열을 하는 거죠. 둘째는 어릴 때 사인을 보면서 ‘엄마, 나 이때는 마스크 안 썼네’ 하더라고요. 자기가 기억하는 인생의 대부분을 마스크를 쓰고 지냈으니 안 쓴 모습이 낯선 거죠. 마스크가 신체의 일부가 된 아이들 모습에 가슴이 아픕니다. 백신은 안전성이 확보된 후 접종해도 되지 않을까요.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백신을 정부 평가의 잣대로 삼지 않았으면 해요.” 이승리님, 직장인



인생 첫 졸업식이 비대면인 아이들

“어린이집에 공문이 왔어요. 졸업식을 진행하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요. 상황은 이해되지만, 대안 없이 불가능만 말하는 모습에 화가 났어요. 아이가 성장해온 공간에서의 졸업식이 갖는 의미에 대한 고려는 없해보였죠. 다시 오지 않을 소중한 날을 비대면으로 맞이하는게 안타까워요.” 신희정님,교육기획자



백신 우선 접종자가 된 구급·소방대원

“구급대원·소방대원은 백신 우선 접종 대상자예요. 의무사항은 아니라면서, 미접종시 명단을 파악해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고 합니다. 사실상 강제접종이라고 반발이 커요. 온라인 익명게시판을 보면 ‘내 신체가 국가 장비인가요?’, ‘실용성이 된 것 같다’, ‘헌법에 의거해 거부할 권리를 달라’고 하죠. ‘백신을 그렇게 빨리 만들다니’, ‘FDA 정식 승인이 아닌 긴급사용허가 상태’, ‘방역보호복으로 갈 건데, 서두를 필요 없다’며 백신에 대한 불신도 크고요. 저도 안 맞고 싶은데, 선택권이 있나 회의감이 듭니다.” 익명,30대소방관

진보, 보수를 떠나 논의되어야 할 일

“정부 지침에 협조는 하고 있지만, 지금처럼 일방적인 행정명령식 진행은 안 된다고 봐요. 동선 공개, 여행 및 이동 금지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의견을 말할 틈도 없이 다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공익이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국민과의 협의와 소통을 바탕으로 절차와 규약이 정해져야 합니다. 요즘은 백신이나 마스크 거부를 말하면 꼴보수처럼 몰리기 쉽잖아요. 진보나 보수나 프레임이 씌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군부독재 때처럼 침묵의 카르텔을 강요 당하고 있는 거죠. 이런 엄청난 변화 속에서 이 사안에 대한 시민단체 연대기구가 생기지 않는 것도 참 이상해요. 이야기할 장이라도 마련해 줘야 할 텐데 그런 움직임마저 보이지 않아 답답합니다.”



약에 대한 의존성을 강화하는 사회

“여권에 백신 접종 정보를 입력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21세기 들어 미국이나 서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신체 정보를 칩으로 저장하는 전자여권을 만들어왔고, 전 세계 130여 개 나라들이 신체 정보가 저장된 전자여권을 승인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려스러운 점은 기존의 통제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방역 자체가 통제의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정보 독점이나 권한 강화를 통해 방역의 권력화도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해결될 가능성도 있고요. 강아지, 고양이도 바이러스 검사를 한다잖아요. 그런 백신이 개발될지도 모를 일이에요. 희극일까요? 비극일까요?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간과되는 문제 중에 하나는 백신에 대한 의존성이 과도하게 강화되거나 맞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간의 사회적 차별이 생겨날 수 있는데, 이반 일리치가 말한 약에 의존하는 사회가 강화될 수 있어서 걱정스럽습니다. 다국적 제약회사들에게는 좋은 소식일테지만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면역력이나 자연 치유력을 키우는 것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충훈님 『여권의 발명』역자



역학으로 내다본 신축년과 코로나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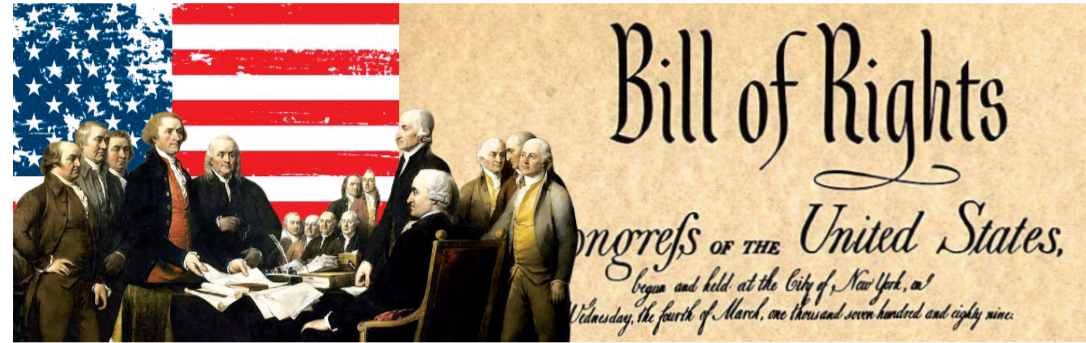
“코로나19 사태는 생각보다 강력했고 많은 것이 무너지고 있어요. 지인의 아버님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는데, 원인을 알 수 없자 자식들이 코로나 때문은 아닌지 괴로움에 시달립니다. 중소기업은 사람을 만나지 못하니 신규사업 진출이 막혔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관계를 끊어버린다’는 점이 제일 심각하게 느껴집니다. 백신 접종은 졸속으로 시행할 문제는 아니죠. 최후의 성역인 자기 몸에 대한 결정권을 침해하고 접종을 강제한다면 독재적 통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코로나 사태를 통해 빅 브라더 정보 장악을 완전하게 이룬 것 같아요. 감시 영역 밖에 있던 개인의 일기조차 통제하는 사회를 이룬 거죠. 역학易學적으로 보면 올해 신축년辛丑年 하반기에는 코로나 사태가 가라앉을 것 같습니다. 글자의 모양이 그렇습니다. 신축년의 신금辛은 보석이나 칼에 비유합니다. 매들것고 결론내고 헤어지는 때입니다. 아름다운 이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사람에 따라서 상처가 될 수 있지만 긍정적으로 보면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내년 임인년壬寅年부터는 목木 기운이 들어와서 봄의 기운이 강해집니다. 그런데 매들이 안된 것들이 계속 영향을 미치면 계절은 봄인데 날씨는 겨울 같이 진눈깨비 날리고 추우면 안 되겠죠? 신축년에 치를 것 다 치르는 것이 훨씬 현명한 일이라는 겁니다. 목은 것을 털어내고 ‘공간을 만들어 놓는다’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계절로 보면 신축년은 겨울의 끝에 해당하는데, 원래 해 뜨기 전이 가장 춥고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두운 법입니다. 설날이 지나 지금이 경인월庚寅月입니다. 생명이 태동하는 시간, 하루의 시작, 일 년의 시작을 인사寅時 인월寅月로 봅니다. 지금부터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내년부터 시작될 봄벌의 강도가 결정될 것입니다. 종합하자면 올해는 잘 떠나보내고 새로운 것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시간입니다. 매서운 칼바람은 마주잡은 손의 온기와 봄에 대한 확신으로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임성원님 현덕경영연구소 소장

*임성원 소장은 인사관리, 교육 등을 설계해온 경영컨설턴트로, 음양오행으로 사람과 조직의 길잡이가 되어주는 역할에도 전문성과 혜안을 가져 매년 초한해의 전망을 나누고 있습니다



2021 세계적이고 역사적인 그날들

글 | 김예슬 사무처장



1791 미국 권리장전 230년

1775년 북아메리카 대륙에서 영국의 식민지배에 맞선 독립전쟁 ‘미국 혁명’이 시작되었다. 마침내 1776년 7월 4일 13개 주가 모여 독립을 선언, 이로써 ‘최초의 민주공화국’ 미국이 탄생했다. 이어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1787년 헌법을 제정했다. 최초의 성문헌법이었다. 그 유명한 “We the people”로 시작하는 이 헌법에는 삼권분립과 양원제를 주축으로 하는 민주적 연방제의 기틀이 새겨졌다. 여기서 더 나아가, 정부의 권력을 제한하고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10개의 수정조항이 헌법에 포함되어 1791년 12월 15일에 발효되었다. 이것이 바로 ‘권리장전(Bill of Rights)’이다. 제1조 종교의 자유, 언론 및 출판의 자유, 집회 및 청원의 권리를 시작으로 시민의 무기 소지 권리, 부당한 수색 및 체포 제한, 사유 재산 보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권리장전은 ‘가장 미국적인 가치들’을 대표하며, 미국인의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된다. 각 나라마다 토대가 되는 정신이 있다. 미국의 정신은 ‘3C’ 기독교(Christianity), 자본주의(Capitalism), 헌법(Constitution)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며, 국가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공감하고 자부심을 가질 만한, 우리를 지탱하고 결속하고 나아가게 하는 ‘한국의 정신’은 무엇인지 숙고해 본다.

1870~71년 프로이센 전쟁에서 패하기까지 프랑스 제정은 극도로 무능했고 민중들은 극심한 기아에 허덕였다. 1871년 2월 프로이센과의 굴욕적 조약이 비준되자, 파리 시민들은 3월 19일 시청을 점거하고 선거를 통해 3월 28일 코뮌 성립을 선포했다. 민중 봉기로 세워진 ‘최초의 사회주의 자치 정부’였다. “시민들이여 스스로를 통치하라”, “자유로운 삶 아니면 죽음!” 85명으로 구성된 시민의회와 노동자 민중들은 무상교육, 남녀 임금 평등, 야간노동 폐지, 정교 분리 등 급진적 이상을 실현하며 파리를 자치적으로 통치해 갔다. 낮에는 노동하고 토론하고 밤에는 춤을 추고 학습하던 해방의 날이 지나고, 5월 21일 ‘피의 일주일’이 시작됐다. 외세의 지원을 받은 정부군에 맞서 시민들은 무기를 들고 대항했다. 1주일의 시가전 끝에 코뮌은 함락되었고 여자와 아이를 포함해 약 3만 명이 학살당했다. 자유의 공기와 해방의 열기를 체험한 주체들, 지배계급에 이보다 큰 공포는 없었던 것이다. 71일간의 혁명. 그러나 “우리는 돌아올 거예요!” 최후까지 항전하다 총살당한 소년 코뮌파의 의침은 혁명의 순간마다 되살아나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

1871 파리 코뮌 150년



1921 중국공산당 창당 100년



1921년 7월 23일 중화인민공화국을 일당독재하는 중국공산당(중공)이 창당했다. 최초의 강령은 ‘반자본주의, 반제국주의’. 그러나 1978년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이래 중국의 일념은 “부유해지는 것”이었고 14억 인구를 기반으로 ‘G2 시대’를 열었다. 하지만 세계 2위 부자나라 인민의 현실은 충격적이다. 인구의 43%에 달하는 6억 명이 월 17만 원으로 산다. 막대한 부는 9,200만 공산당원 중 최상위 지도부가 독차지하고 있다. 한편 ‘반제국’을 기치로 한 중공은 그 자신이 제국을 꿈꾸며 세계 63%를 경제공동체로 묶는 “일대일로”를 추진 중이다. 그 이면에는 위구르·티베트·내몽골 등 소수민족 말살, 대만·홍콩 자치권 침해 등이 벌어지고 있다. 동시에 중공이 추구하는 “사회주의 현대화”는 ‘감시국가의 완성’을 향해가고 있다. ‘텐왕(하늘의 그물) 프로젝트’의 얼굴인식 카메라는 전 인민을 24시간 감시한다. 거의 모든 곳이 QR코드 통제 하에 있다. 개인에 ‘사회적 신용등급’을 매기는 시스템도 개발 중인데, 점수에 따라 주거·진학·취직·여행 등이 제한된다. 곧 실현될 ‘디지털 인민화폐’는 가장 효과적인 통제수단이 될 전망이다. 이는 중국 인민에 국한된 사태가 아니다. 지난 12월 ‘중공의 침투’가 세계의 비상사안으로 떠올랐다. 당의 지령으로 미국·호주·영국 등의 정부, 기업, 금융, 군산, 제약업체, 대학 등에 잠입한 195만 명의 중공 당원과 7천여 곳의 중공 지부 명단이 유출된 것이다. 진중 글로벌리스트 세력이 전 지구적 ‘전체주의 전진’을 확대해 가는 지금, 지난 역사에서 유의미했던 사회주의의 이상 혹은 환상은 냉철히 점검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인민의 입장에서 말이다.

1971년 8월 15일 닉슨 대통령이 ‘금-달러 교환 중지’를 선언했다. 돈을 찍으려면 그에 상응하는 금이 있어야 했던 시대를 끝낸 이른바 “닉슨 쇼크”는 역사상 가장 거대한 변화를 야기했다. 50년간 ‘가짜 돈’이 대대적으로 인쇄됐고 화폐 가치 폭락, 인플레이션, 구매력 하락, 중산층 파괴로 이어졌다. 1971년 이후 각국의 화폐 구매력은 95% 이상 하락, 오늘의 1달러는 70년대 5.6센트 가치에 불과하다. 한편 금이 화폐 가치를 보장하던 제도를 폐지한 이래, 금융권력은 통화량 조작을 통해 전대미문의 이익을 취해왔다. 이 기간에는 달러발행권을 전 연방준비위원회가 있다. 연준은 1913년 로스차일드 등 금융재벌 주도로 설립된 ‘사설은행’이다. 정부 감사조차 받지 않는다. 미국뿐 아니라 어느 정부도 화폐발행권이 없다. 정부는 채권을 발행해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막대한 세금을 건어 이자를 갚는다. 은행은 전 산상 숫자로 ‘가상의 돈’을 빌려주고 국민의 주머니에서 ‘합법적으로 현금’을 빼가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매년 이자 비용만 연방소득세를 압도한다. 부채와 이자 없는 ‘정부화폐’ 발행을 시도한 링컨, 케네디는 암살당했다. 국가의 화폐발행권을 되찾고 새로운 통화체로 개혁하지 않는 한 영원한 부채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다.

1971 금본위제 공식 폐지 5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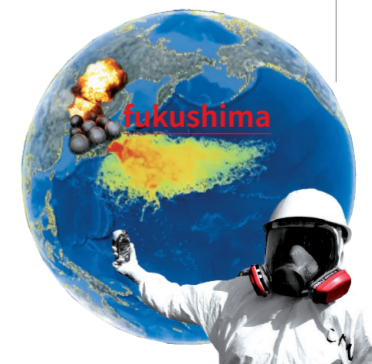


1991 소련 해체 30년



1917년 ‘10월혁명’으로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 소비에트연방이 창설됐다. 초대 지도자 레닌에 이어 스탈린, 후르초프, 고르바초프에 이르는 동안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의 성과는 자본주의 생산력에 뒤떨어졌고 “노동자 농민의 국가”는 극도의 전체주의 속에 퇴색해 갔다. 우주로까지 확장된 미·소 군비경쟁, 오일머니 부족, 개혁 개방의 바람 등. 결국 1991년 12월 21일 11개 공화국이 ‘독립국가연합’을 선언, 25일 고르바초프가 사임하면서 소련은 74년 만에 해체되었다. 이는 ‘냉전의 종식’이었다. 두 최강대국이 무기를 쓰지 못하는 ‘차가운 전쟁’, 냉전의 실질적 전선은 일상이었다. 자유민주주의의 삶인가, 사회주의의 삶인가. 자율적 개인의 삶인가, 일당독재 지배의 삶인가. 일상적으로 경쟁을 펼친 삶의 총체적 전쟁이 냉전의 실체였다. 차별과 착취로 고통받던 인류 절반의 붉은 꿈, 사회주의가 무너진 자리에 독주해온 자본권력 세계화의 30년. 새로운 30년은 새로운 사상과 삶을 세우려는 오늘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2011 후쿠시마 원전재앙 10년



9.11 20년

“미국의 심장부가 공격당했다.” 21세기는 이렇게 시작됐다. 2001년 9월 11일 08:46 세계 무역센터(WTC) 1타워에 AA11편 충돌. 09:03 2타워에 UA175편 충돌. 09:37 펜타곤에 AA77편 충돌. 10:02 펜실베이니아 생스빌에 UA93편 추락. 17:20 WTC 7타워 붕괴까지. 이날의 참사로 약 3천 명이 사망했다. 당국은 즉각 빈 라덴과 알 카에다를 용의자로 지목, 대대적 작전을 펼쳤다. 그러나 충격과 공포, 분노와 슬픔의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무인 가 이상하다’고 느꼈다. 어떻게 납치된 항공기 4대가 방위시스템을 뚫고 금지구역에 비행했나? 어떻게 강철의 쌍둥이빌딩을 뚫고 녹여 자유낙하 속도로 붕괴시켰나? 왜 생존자들은 비행기 충돌 전 폭발이 있었다고 증언했나? 왜 탑승자 명단에 납치범들의 이름은 없었나? 왜 펜타곤, 생스빌의 비행기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나? 그럼에도 시신들은 온전히 남았나? 왜 3개의 블랙박스도 실종, 회수된 1개는 끝내 공개되지 않았나? 왜 CIA가 있던 7빌딩은 8시간 후 돌연 붕괴했나? 왜 부시 정부는 일체의 진상조사와 청문회를 반대했나? 모든 것이 불명확했으나 그날 이후 세계는 명확히 바뀌었다. 9월 28일 UN안보리는 ‘테러로 인한 국제 안보 위협’안을 채택, 캐나다 총리는 “신세계질서를 설립할 위대한 결의안이 통과됐다”고 말했다. ‘테러와의 전쟁’이란 명분 아래 국토안보법 제정, 전 세계 공항의 신체 검문, 정보기관의 개인 도감청 등 전례 없는 권력이 주어졌다. 그러나 세계는 더 위험해졌다. 아프간·이라크 전쟁 사망자 150만 명. 90%가 민간인이었다. 침공의 명분이던 생화학무기는 없었다. 부시와 딕 체니 일가 측근의 군산업체, 석유기업은 천문학적 수익을 거뒀다. 테러 횡수는 9.11 이전보다 10배가 늘었다. 세계와 우리 삶을 변모시킨 9.11의 진실이 밝혀져야 하는 이유다.



2020년 9월 26일, 펜실베이니아주 해리스버그 국제공항에서 열린 유세 집회에서 연설하는 트럼프 대통령 ©AP

2020년 11월 3일, 제46대 미국 대통령 선거가 “남북전쟁 이래 최대의 내전”이라 불릴 만큼 초유의 사태들로 전개됐습니다. 트럼프에 대한 지지 여부를 떠나, 기존의 ‘보수 진보’ 프레임만으로는 파악되지 않는 보다 근원적인 실상, 미국의 운명을 넘어 세계의 향방을 결정지을 ‘거대한 분기점’이 된 2020년 미국 대선의 핵심을 정리했습니다.

글 | 윤지영 글로벌평화나눔팀장, 김예슬 사무처장

2020년 미국 대선에 전 세계가 촉각을 기울였다. 바이든 측의 대규모 부정선거 의혹, 시위대의 의사당 난입, 전쟁터를 방불케한 워싱턴 D.C.를 메운 장갑차와 무장군, 빅테크 기업의 여론 검열과 초유의 현직 대통령 계정 삭제까지. 그 중심에는 트럼프의 기록적인 ‘득표수’와 ‘지지율’이 있었다. 지난 대선보다 1,000만표나 많은 7,400만표로 재선 최대 득표를 기록, 공화당 후보로 60년 만에 가장 많은 비백인 표를 받았다. 전례 없는 ‘두 번째 탄핵’ 추진 속에서도 퇴임 전날 트럼프의 지지율은 51%로 역대 대통령 중 최고였으며, 퇴임 후에도 공화당원이 원하는 “2024년 대통령 후보”에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인들은 ‘가장 존경하는 인물’ 1위로 트럼프를 꼽기도 했다. 한국 언론은 물론 미국 주류 언론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이 극적인 ‘팩트’는 무엇을 말하는가?

30년의 글로벌리즘과 ‘America First’

오늘의 사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트럼프’라는 인물을 만들어온 30년의 역사를 돌아봐야 한다. 사회주의 붕괴 후 지난 30년은 ‘글로벌라이제이션’, ‘세계화’의 시대였다. 국경 없는 자본권력의 독주 속에 가장 큰 이득을 본 것은 다국적 거대기업과 월가, 금융재벌, 군산업체, 실리콘밸리와 빅테크 기업, 지구의 생산공장이 된 중국의 공산당 지도부와 그들과 결탁한 워싱턴 정치세력이었다. 그러나 미국의 노동자 계급과 민중, 중산층에게는 ‘가혹한 세계화’의 30년이었다. 공장이 해외

로 빠져나간 러스트벨트에는 녹물이 흐르고, 실업자는 폭증하고, 불법 이민자가 쏟아지고, 마약 자살 범죄가 들끓고, 교육과 의료 복지는 최악이고, 끝없는 침략 전쟁으로 청년들이 죽고, 침략국이라는 지탄과 테러 불안은 커지는 현실에 다수 미국민들이야말로 세계화의 딜레마를 여실히 느끼고 있었다. 불평등의 양극화는 심화돼갔다. 그때, 트럼프가 등장했다. “아메리카 퍼스트”를 들고. 트럼프는 “미국의 대통령은 세계의 통치자가 아니다”라며 ‘내 나라 국민을 최우선한다’는 대통령의 당연한 의무를 되새겼다. 지난 30년간 미국이 자임해온 ‘자유무역의 선도자’와 ‘세계의 경찰국가’라는 허울 좋은 명분이 소수의 지배층만 살찌울 뿐, 미국민 다수가 처한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현실에 그가 응답한 것이다.

‘딥 스테이트’를 수면 위로 드러내다

트럼프는 뉴욕군사학교와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을 졸업했고, 그의 이름이 곧 ‘브랜던’인 성공한 기업가였으며, 소통에 능숙한 미디어 스타로서 명성과 인기를 누렸다. 대학생 시절 오바마조차 트럼프를 “미국 성공의 상징”이라고 여겼다. 트럼프는 자신이 말한 것처럼 “그저 성공의 열매와 혜택을 누리며 살 수도” 있었다. “신랄한 거짓말과 악의적 공격을 받을 필요가” 없었다. 트럼프는 2016년 대선에 나선 이유를 이렇게 표명했다. “소수의 세계적 특별 이익집단이 이 나라를 조종하고, 시스템을 조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국부를 빼앗아 대기업과 정치집단의 주머니를 채웠습니다. 우리는 국민에 의해 움직이는 정부를 되찾거나 되찾지 못하느냐 하는 역사적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 이 나라를 되찾을 것입니다.” 그때부터 트럼프는 “워싱턴이라는 부패한 늪의 물을 빼(Drain the Swamp)”, “딥 스테이트(Deep

State)”를 척결하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Make America Great Again)”고 외쳐왔다. ‘딥 스테이트’란 정부 안의 ‘숨은 정부’로, 실질적으로 세계를 조종하는 권력 네트워크를 일컫는다. 이들은 민주당 공화당, 보수 진보라는 표면적 경계와 무관하게 존재한다. “전 세계에 걸쳐 치밀하게 뭉친 ‘무자비한 음모’로부터 위협받고 있다”던 존 F. 케네디 이후 트럼프는 ‘딥 스테이트’의 존재를 수면 위로 드러낸 최초의 대통령이었다. 트럼프는 ‘금기시됐던’ 일을 거침없이 이어갔다. 기득권의 이익에 복무하는 엘리트 정치인의 부패와 무능을 그들의 면전에서 조롱하고 폭로했다. 무엇보다 ‘진보의 외투’를 걸친 ‘민주당의 위선’을 벗겨냈다. 2016년 대선 당시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힐러리 이메일 스캔들’이 적나라하게 보여주듯 말이다. “그들만의 세계”에서 부와 권력을 누리며 진보 지성의 언사를 구사하며 ‘잘난 체하던’ 모습에 신물이 난 미국민들은 열광했다. 그리고 트럼프는 제45대 대통령이 되었다. 모든 주류 집단의 예측을 뒤엎고 ‘워싱턴 정가의 아웃사이드’로 유일하게 대통령직에 오른 것이다.

트럼프의 4년의 성과와 미국민의 민심

트럼프가 누구인가는 지지기반으로 드러난다. 실제 트럼프는 여느 부유층과 달리 ‘텍스기사와 서민들과 친하며 현장 노동자와 가장 많이 어울린’ 사람이다. 그는 수십 년 만에 소외된 다수 미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결과로 실행한 정치인이다. 트럼프 정부 4년간 신규 일자리 7백만 개가 창출됐고, 미 역사상 최저 실업률을 기록했다. 근로자 급료는 16% 상승했다. 글로벌 제약사들이 폭리를 취하던 약값 인하를 단행했으며, “마약과 범죄로부터 국경을 지켜달라”던 미국민의 오랜 요구였던 국경 안전을 확보했다. 자국 내 ‘에너지 독립’으로 중동의 석유를 갈탈하지 않고도 기름값을 절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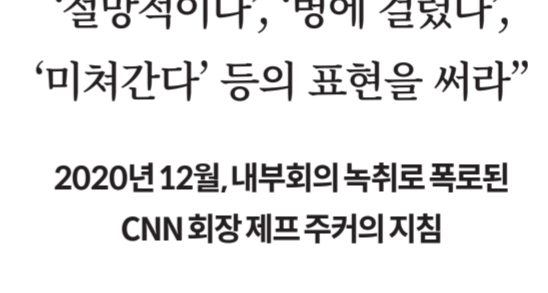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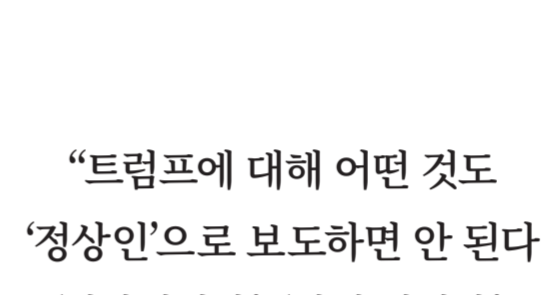
으로 낮췄다. 주 이스라엘 대사관 예루살렘 이전 등 분쟁의 불씨도 남겼지만, 이라크·아프간·시리아 철군을 추진했으며, 무엇보다 30년 만에 ‘전쟁을 일으키지 않은’ 유일한 미국 대통령이었다. 트럼프 집권 후 “4년 전보다 형편이 나아졌나”라는 질문에 국민 56%가 ‘그렇다’고 답했다. 레이건 이후 최고 수치다. 그러나 워싱턴 정치인들에게 ‘악몽’같은 일이었다.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의장은 트럼프의 성과가 적힌 대통령 연설문을 그의 등 뒤에서 찢어버렸다. 그들이 수십 년간 약속한 일을 4년 만에 해낸 목회자, 국민들이 정치에 요구해온 바로 그 결과 말이다.

“트럼프를 미치광이로 각인시켜라”

실제 트럼프를 제대로 알고 평가하기란 쉽지 않다. 그 중심에 메인스트림 미디어(MSM)의 ‘이미지 전략’이 있다. 트럼프 정부 출범 60일 동안 긍정적 보도는 5%로 역대 최저, 부정적 보도는 62%로 역대 최고였다. 또 ‘정책’에 관한 보도는 31%로 역대 최저, ‘성품’에 관한 보도는 69%로 역대 최고였다. 2020년 대선 때 NBC, ABC, CBS 방송 3사도 트럼프는 부정적 보도가 92%, 바이든은 긍정적 보도가 66%였다. 주류 미디어는 4년 내내 트럼프를 “폭군”, “전쟁광”, “미치광이”로 인식하게 만들었다. “트럼프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정상인’으로 보도하면 안 된다. ‘불안정한 행동’, ‘절망적이다’, ‘병에 걸렸다’, ‘점점 미쳐간다’ 등의 표현을 써라.” 2020년 12월 내부회의 녹취로 폭로된 CNN 회장 제프 주커의 말이다. 트럼프가 진실을 가리는 “국민의 적”이라고 지적했던 CNN의 민낯이었다. “누구든 그들의 권력에 대항하면 성차별주의자, 인종차별주의자, 외국인 혐오주의자로 몰아갑니다. 이 나라의 기업 언론은 더 이상 저널리즘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거짓을 말하고 거짓을 말하고 또 거짓을 말합니다”라던 트럼프의 말은 현실이 되었다. 트럼프는 세계에서 가장 미움받고 조롱받고 심지어 증오하는 인물이 되었다. 민주당 공화당 정치인은 물론, 정보기관, 거대기업, 월가, 미디어, 빅테크, 국제기구, 전문가, 학계, 할리우드, 다른 나라에서까지 말이다.

최초로 ‘두 번의 탄핵’ 시도와 실패

“영구 기득권 세력”을 정면으로 겨냥한 순간, 이것은 정해진 운명이었다. 트럼프는 ‘취임과 동시에’ 그리고 ‘퇴임한 이후에’ 탄핵이 진행된 최초의 대통령이 되었다. 대통령 취임 19분 뒤 <워싱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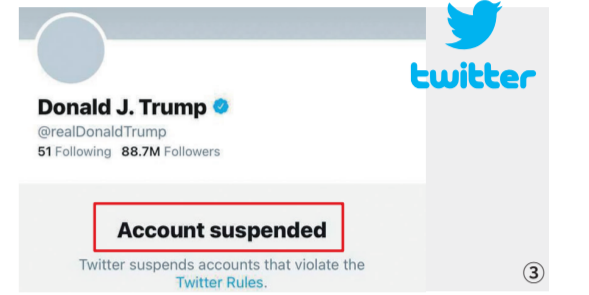


“트럼프에 대해 어떤 것도 ‘정상인’으로 보도하면 안 된다. ‘절망적이다’, ‘병에 걸렸다’, ‘미쳐간다’ 등의 표현을 써라”

2020년 12월, 내부회의 녹취로 폭로된 CNN 회장 제프 주커의 지침

포스트>는 “트럼프 탄핵 캠페인이 시작된다”고 공언했다. 주류 언론은 탄핵 혐의로 “러시아 스캔들”이라는 ‘공공연한 거짓말’을 끊임없이 반복하며 거짓을 사실로 만들었다. 그러나 민주당, 법무부, 특검, FBI, CIA 등이 수년간 조사했지만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았다. 오히려 ‘러시아와 트럼프 캠프가 내통했다’는 “러시아 스캔들”은 오바마 정부와 힐러리 캠프의 불법 조작으로 밝혀졌다.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정부에 바이든과 차남 헨터에 대한 수사를 중용했다’는 “우크라이나 스캔들”도 바이든 일가의 범죄를 드러냈을 뿐이다. 2020년 10월 헨터 바이든의 노트북에서 중공-우크라이나-러시아와의 ‘부패 커넥션’과 마약, 아동성범죄 등의 충격적 증거가 폭로되었다. 하지 만 언론은 거의 보도하지 않았고, 페이스북과 트위터는 관련 기사와 포스팅을 차단했다. 그 결과 바이든 유권자의 45%가 ‘헨터 바이든 스캔들을 들은 적 없다’고 답했고, 16%는 ‘알았다면 바이든에게 표를 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했다. 두 번째 탄핵 재판도 무죄였다. 퇴임한 시민을 탄핵한다는 게 위헌적인 뿐더러, 혐의로 제기된 ‘의사당 내란 선동’도 사실무근이었다. 탄핵소위가 제시한 트럼프 연설 영상이 왜곡 편집됐다는 중

①2020.12.9 조지아주 의사당 앞에서 “도둑질을 멈춰라!”는 피켓을 들고 선거 부정에 항의하는 시위자들 ©Getty Images. ②2021.1.19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을 앞두고 워싱턴 D.C.에 깔린 무장군인 ©AFP. ③2021.1.8 트럼프 계정을 영구 정지한 트위터. ④2020.10.14 대선 직전, 바이든 부자의 우크라이나 부패 혐의를 최초 보도한 <뉴욕포스트>. ⑤2021.1.19 트럼프 대통령 고별연설에서, “우리의 운동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거도 제출됐다. 한편, 탄핵을 추진한 미치 맥코넬 상원 원내대표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사건 당일 의사당 보안을 강화해달라는 의회경찰국장의 요청을 6번이나 거절했다. 트럼프와 무관한, 수주 전 이미 의사당 진입을 계획하고 폭력을 선동했던 극좌파 용의자도 기소됐다.

미 역사상 유례없는 정치운동 ‘MAGA’

정치일간지 폴리티코가 “미국민의 여론은 워싱턴에서 주장하는 것과 매우 괴리가 크다”고 분석한 것처럼, 트럼프는 수십 년 동안의 어떤 정치인보다 민중의 열광과 사랑을 받았다. 그의 재선을 바라는 열기는 몇 개의 유세 영상만 봐도 알 수 있다. 트럼프가 가는 곳마다 함성이 끊이지 않았고, 유세장은 며칠을 기다린 사람들로 가득 찼으며, 수백 킬로미터의 지지 행렬이 이어졌다. 이들은 “Make America Great Again”의 앞글자를 따 ‘MAGA’라는 미국 역사상 유례없는 정치운동을 일으켰다. 트럼프와 그를 지지하는 수천만 국민은 기득권 질서에 ‘실존적 위협’이었다. 이 운동이 또다시 승리하라는 걸 직감했으며 이를 원치 않았던 자들은 필사적인 행동에 나섰다. 결정적 사건은 선거 당일 11월 3일에 일어났다.

그날 밤만 해도 ‘트럼프의 압도적 승리’가 예견됐다. 하지만 새벽 사이 ‘바이든의 근소한 승리’로 결과가 뒤바뀌었다. “유권자가 누구에게 표를 던졌는지는 중요치 않다. 중요한 것은 누가 표를 계산하는가이다.”(스탈린) 이 섬뜩한 말이 2020년의 미국에서 실행됐다. ‘우편 투표, 개표 조작, 외세 개입’ 등을 통한 대규모 부정이 벌어진 것이다.



미 대선, 개표 조작부터 외세 개입까지

대표적인 사례만 살펴보자. 우편 투표용지가 죽은 사람, 이시간 사람, 고양이에게도 배송됐다. 유권자 대조 절차가 생략됐다. 투표율이 100%가 넘는 주도 나왔다. 투표용지에 뭔가를 적거나 한 표를 중복스캔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비닐도 뜯지 않은 대량의 가짜 투표용지가 폐기됐다. 조지아주 폴턴 카운티 CCTV 영상에는 탁자 밑에서 투표용지가 가득 든 캐리어를 몰래 꺼내는 모습이 찍혔다. ‘수도관이 파열됐다’며 미 대선 사상 최초로 개표를 중단한 11월 3일 밤에 일어난 일이다. 이후 수도관 파열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외세 개입’ 정도도 드러났다. 경합주에서 사용된 전자개표기 ‘도미니언’ 시스템. 미시간주 앤트럼 카운티에서는 포렌식 감사 결과 오차율이 무려 68%로 나타났고 선거 결과가 뒤바뀌었다. 경합주의 집계 그래프를 보면 바이든 표가 단숨에 수직 상승했는데, 5만~33만 표 이상이 단 1~2초 사이에 집계됐다. 물리적으로 불가능 수치다. “알고리즘이 의도적으로 고안된 것”(미국 국토안보부 창립멤버 개리 필리프스키)이란 주장이 나왔다. 디지털 ID 시스템 발명이 조반 풀리처는 부정선거 청문회 자리에서 실시간 해킹 시연에 성공했다. 미 육군 ‘305군사정보대대’ 소속 전자정보 전문가는 대선 당일 도미니언 시스템이 해외 서버와 연결돼 있었고, 중국·세르비아·이란·베네수엘라·파키스탄 등이 연관돼 있음을 밝혀냈다. 또한 오바마 정부 시절 CIA가 개발했다고 폭로된 투표조작 프로그램 ‘스코어카드’의 흔적이 오바마 지지단체인 ‘인디비저블’ 사이트에서 발견됐다. 이 증언이 사실이라면 개표 부정 의혹은 해외 세력, 민주당, CIA, 사이버보안국까지 얽힌 엄청난 사건이 된다. 이 증언자는 “기술 문제가 아닌 안보 문제다. 바로 잡지 않으면 미국인들은 영원히 선거 결과를 믿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축출’을 위한 “그림자 캠페인”

이 부정한 “승리”를 이끈 ‘숨은 기획자’들은 ‘자신들의 공로’라는 것을 참지 못하고 드러냈다.

“엄청난 권력과 자금력을 가진 카발(cabal, 은밀한 집단)이 무대 뒤에서 규칙과 법을 바꾸고, 정보를 통제하기 위해 협력했다”

2021년 2월, 미 대선 ‘트럼프 축출’을 위한 “그림자 캠페인”에 대한 <TIME> 기사

2021년 2월 4일, <TIME>은 10쪽에 걸쳐 “그림자 캠페인의 비밀”을 실도했다. “어떻게 대선을 구했는가”로 포장된 내용을 뜯어보면 “어떻게 선거를 훔쳤는가”가 기술돼있다. (원제는 「The Secret History of the Shadow Campaign That Saved the 2020 Election」. 이하 따옴표 내용은 <TIME> 원문) 노조, 진보활동가, 데이터 전문가, 재단 대표 등 수백 명의 반트럼프 인사들이 “의회, 실리콘밸리, 주정부”까지 영향력을 미쳤다. “트럼프 축출”을 위해 “산업과 이념을 아우르는 엄청난 권력과 자금력을 가진 카발(cabal, 은밀한 집단)이 무대 뒤에서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규칙과 법을 바꾸고, 언론 보도를 조종하고, 정보 흐름을 통제하기 위해 협력했다.”

이번 대선은 코로나19로 ‘우편투표’가 대폭 확대, 전체의 절반에 달하는 6,525만 표였다. 입법 권한이 없는 주지사가 선거 직전 선거법을 바꿔 ‘워헌 판결’을 받았고, 우편투표 인프라에 3억 달러를 기부한 페이스북 CEO 저커버그가 ‘불법 기부’ 혐의로 소송을 당했다. 그런데 <TIME>은 “주정부가 투표 시스템과 선거법을 바꾸도록 수억 달러의 공적, 사적 자금을 확보”하고, “개표 군단을 모집”하고, “개표가 며칠 또는 몇 주에

①2018.8.2 코네티컷주에서 열린 트럼프 대선 유세 현장에서 ‘MAGA’ 피켓을 든 시민 ©Shutterstock. ②2020.10.26 지지자들에게 둘러싸인 트럼프 대통령. ©The Boston Globe. ③2019.6.30 판문점에서 북미 역사상 최초로 만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AFP. ④2020.2.4 트럼프 대통령의 등 뒤에서 국정연설문을 읽고 있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Reuters. ⑤2021.2.4 트럼프 축출을 위한 “그림자 캠페인”을 기술한 <TIME>의 기사.



걸쳐 진행될 것임을 인식시키도록” 작업한 것이 바로 ‘그림자 캠페인’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피터 나바로 전 백악관 무역제조업 국장은 부정선거 조사 보고서를 통해 6개 경합주에서 “총 300만 표의 불법 투표가 있었다”고 결론내렸다. 해당 경합주들에서 바이든이 트럼프를 이긴 표차보다 많다. 하지만 법원은 50여 건의 소송을 모두 기각, 각하했고 수만 페이지의 증거와 증언을 단 한 건도 심리하지 않았다. 그 결과 바이든 당선에 “부정선거 가능성이 있다”고 답한 미국민은 47%에 달한다. “그림자 캠페인”에 대해 “Stop the Steal(도둑질을 멈춰라)”을 외치는 이유다.

트럼프의 패배, 그리고 승리

트럼프는 선거에서 패배했다. 그리고 미래에서 승리했다. 자신을 표적으로 삼아 ‘숨은 적의 실체’를 높여서 건져 올렸기 때문이다. 먼저, 그동안 ‘음모론’으로 치부됐던 딥 스테이트의 실재를 ‘공론장’에 끄집어냈다. 트럼프 이후 미국민의 74%가 “비밀리에 국가정책을 조작·지휘하는 선출되지 않은 인사들, 즉 딥스테이트가 존재한다”고 답했다. 그리고 39%가 “트럼프 대통령 재선을 막기 위해 딥 스테이트가 개입했다”고 답했다.

또한 트럼프가 중국공산당과의 대적을 ‘경제 전쟁’ 이상의 ‘국가 존립’의 사태로 삼음으로써, 세계 각계에 뻗친 중공의 영향력이 가시화됐다. 2021년 1월, 「해외 세력의 미국 대선 개입」 보고서를 상원에 제출한 국가정보국 존 랫클리프 국장은 “지난 수년간 중공은 방대한 인력과 연간 850억 달러(약 94조원) 예산으로 미국 의회에 침투했다”며 “베이징은 지구를 경제적, 군사적, 기술적으로 지배하려고 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미국 고위층의 부패와 타락상이 조명됐다. 새 대통령 바이든 일가의 글로벌 부패 커넥션, 공화당 1인자 맥코넬과 부인 차오의 중공 커넥션, FBI 기밀 해제로 드러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일가의 범죄상, 오바마-힐러리의 ‘러시아 스캔들’ 조작, 아동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과 연루된 민주당 정치인들부터 연방대법원장까지. 각각 미국 정치를 뿌리째 흔들 수 있는 사안들이다.

빅테크의 횡포를 전면으로 드러내다

트럼프와의 결전으로 빅테크의 본색도 드러났다. “소셜미디어가 콘텐츠나 계정을 삭제하도록 압박”했다는 “그림자 캠페인”에 대한 <TIME> 기사대로, 트위터·페이스북·유튜브 모두 자체 검열로 수십만 개의 계정을 삭제했다. 검열을 피해 ‘팔라’가 떠오르자, 애플과 구글은 접근을 차단했다. “취임 후에도 (검열을) 계속할 것”(트위터 잭 도시), “바이든 정부와 일할 기회를 찾기 바란다”(페이스북 저커버그)는 내부회의 영상도 폭로됐다. 이러한 검열, 삭제는 ‘캔슬 컬처(Cancel Culture)’라는 현상으로 자리잡았는데, 비단 온라인 상의 일뿐이다. 트럼프를 지지한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되고, 자격을 박탈당하고, 현판에서 이름이 지워지고, 신상 노출로 위협을 받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빅테크가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있다. 치명적인 실수가 될 것”(트럼프), “침묵하게 하는 것은 미국스럽지 않다. 공산당에서나 하는 짓”(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이란 말은 기우가 아니었다. 제1의 가치로 여기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한 미국민들의 분노는 상당하다. 8,900만 팔로워를 지닌 ‘세계 최대 1인 언론’ 트럼프의 계정을 삭제한 직후, 트위터 주가는 6.4% 급락해 3조 원이 증발했다. 주류 언론에 대해서도 대선 이후 미국민 60%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트럼프 퇴임 첫주 CNN 시청률은 무려 44% 하락했다.

초국가적 기구의 막강한 권력에 제동을

‘가짜 뉴스’와 ‘진실 공개’의 가장 치열한 정보전이

글로벌 기득권력의 판도를 뒤흔든 트럼프와 그와 함께 전진한 수많은 미국민들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우리의 정치운동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벌어지고 있는 ‘코로나19’. 트럼프는 처음부터 “부패한 세계보건기구(WHO)”에 불신을 표했다. “독감보다 덜 치명적이다”, “코로나가 당신의 삶을 지배하도록 하지 말라”며 봉쇄 해제와 일상 회복을 강조했다. 그 과정에서 WHO, 글로벌 거대기업, 제약기업, 빌 게이츠 등의 백신주의자, 락다운 시행 주지사 등과 첨예하게 대립하며 코로나19의 진실을 밝히려는 세계적 움직임에 불을 지폈다. 트럼프는 국제연합(UN), 국제통화기금(IMF), 세계무역기구(WTO) 등 미국이 주도하거나 깊이 관여해온 초국가적 기구의 막강한 권력에 제동을 걸었다. 언론에서는 “미국 이기주의”, “글로벌 리더십 부재” 등으로 매도했지만 국제기구들이 전면으로 내건 “세계 통합주의(Globalism)”, “신세계 질서(New World Order)”의 감춰진 진실에 수많은 이들이 눈뜨게 한 계기가 되었다. ‘달려 발행’과 ‘금리 조정’이라는 독점적 권한을 쥐고 세계 경제 전체를 움직였던, 그러나 실은 국가기구가 아닌 ‘사실은행’에 불과한 연방준비제도(Fed)도 트럼프는 공권력으로 견제해왔다.

격변하는 세계, 한반도의 새로운 위기

코로나19라는 ‘바이오 파시즘’, 해킹을 통한 개표 조작의 ‘디지털 파시즘’, 주류 언론과 빅테크의 ‘미디어 파시즘’이 집약되어 펼쳐진 2020년 미 대선. 덧씌워진 편견과 이념의 잣대로 트럼프 현상과 오늘의 미국을 보지 못할 때, 격변하는 세계 정세와 시대 흐름 속에 길을 잃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한반도에 위기가 감돌고 있다. 세계 국방비 총액의 약 40%를 지출하는 미국에서 트럼프는 집권 4년간 단 한 번의 전쟁도 일으키지

않았다. 군산복합체는 전쟁 특수를 누리지 못했고 무기 재고는 엄청나게 쌓였다. 절반 가까운 국민이 대선 결과를 불신하고 코로나19로 경제까지 악화된 상황에서, 내부의 분노를 억누를 카드가 새로운 전쟁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마침 중국, 러시아, 일본은 물론 유럽과 아시아 각국에서 ‘현재의 권력’이 흔들리고 있다. 이것은 ‘전쟁의 신호’다. 위기에 처한 부정한 권력의 가장 강력한 돌파구가 전쟁이라는 것은 역사가 말한다. 바이든의 미국이 북한을 겨냥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위대한 각성Great Awakening’으로

트럼프는 고별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를 이끄는 빛이자 변치 않는 신념은 바로 이것입니다. 고귀한 일상을 살아가는 시민을 섬기기 위해 국가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어젠다는 우파나 좌파, 공화당이나 민주당에 관한 것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의 이익, 즉 국민 모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땅의 수많은 성실한 애국자들과 함께 우리는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정치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운동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나라와 우리 아이들에게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4년 동안 글로벌 기득권력의 판도를 뒤흔든 트럼프. 그리고 그와 함께 전진한 수많은 미국민들은 코로나19 이후 글로벌리스트들이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거대한 재편(Great Reset)”에 맞서 ‘위대한 각성(Great Awakening)’으로 나아가고 있다. 진영과 이념의 장막에서 벗어나 사실과 진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 우리의 위치를 새롭게 점검하고 재창조하는 ‘위대한 결음’을 함께 내딛을 때이다.



미국 대선 유세 마지막 날인 2020년 11월 2일, 위스콘신주 케노샤 공항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보기 위해 모인 수많은 시민들 ©AFP



“역사의 전환점이 될 레딧 혁명”(FOX News), “영화로 만들어 질, 경제학 교과서에 나올 만한 일”(CNN), “모든 것이 엘리트들 위해 꾸며져 있음이 드러났다”(Newsmax). 세계 증시를 뒤흔든 게임스탑 사태. 이를 통해 수많은 사람의 생계가 달린 기업을 살리고 죽이는 대형 헤지펀드와 투자사, 그들의 독점과 부정을 도와온 불공정 기관과 정치권, 금융계의 이익을 대변한 언론까지 드러났다. 사태는 일단락했지만, 이 ‘운동’이 어디서 시작되었고 어디로 향하는지 정리해본다. 글 | 신소현 연구원

공공매도, 없는 것을 판다

1월 말 ‘개미들의 반란’으로 세계 톱 뉴스를 차지한 게임스탑 사태. 그 중심에는 ‘공매도’가 있다. 공매도란 값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먼저 판매해 현금을 얻고, 예상대로 하락하면 주식을 구입해 되갚아 차익을 남기는, ‘먼저 팔고 나중에 사’는 이상한 방식이다. 대부분의 경우 대형 펀드사의 공매도 발표만으로 주가 하락을 유도하게 된다. 이번에도 멜빈케피터는 “게임스탑 주식을 공매도하겠다”고 대대적으로 발표했고, 별일이 없었다면 주가는 떨어지고 헤지펀드가 큰 이익을 얻었을 것이다. 그런데 650만여 명의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에 맞서 주식을 매입하면서 게임스탑 주가가 오르기 시작, 1월 마지막 열흘 간 1600% 폭등하기에 이르렀다. 관련 헤지펀드는 708억 달러(약 79조 원)의 손해를 입고 30일 사실상 ‘항복’을 선언했다.

시장을 조종해온 거대 자본과의 전쟁

이 ‘전쟁’을 주도한 이들은 미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의 유저들이다. 처음에는 주가가 올라 이익을 봤다는 경험담이 올라오며 주식을 사기 시작했다. 그런데 공매도 발표 후 ‘월가의 현상급 사냥꾼’이라 불리는 앤드루 레프트가 “게임스탑엔 가치가 없어, 이 멍청이들아”라며 대놓고 ‘빠지라’고 압박했다. 이어 결정적 사건이 터졌다. 개인 투자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주식거래 앱 ‘로빈후드’가 게임스탑 매수 버튼을 없앴 것이다. 게다가

앤드루 레프트가 속한 시타델 헤지펀드가 로빈후드 지분 40%를 소유, 공매도를 주도한 멜빈케피터에 투자한 사실이 알려졌다. 노골적 조작에 분노한 이들은 개인 매수 차단으로 인한 주가 하락에도 “대열을 지켜라!” 외치며 주식을 팔지 않았다. 언론은 ‘게으르게 돈 굴려 한탕 벌려는 한심한 수작질’로 몰아갔다. 구글은 앱스토어에서 로빈후드에 분노한 10만 건의 리뷰를 삭제, 페이스북은 로빈후드 유저들의 페이지를 삭제했다. 나스닥 CEO는 “소셜미디어를 ‘모니터링’하며 비정상적 거래를 중단시키겠다”고 나섰다. 미 증권거래위원회는 “계속 오르면 거래를 막겠다”고 위협했다. 증권사가 현행범죄를 저지르는데도 검찰은 상황이 끝난 후에야 수사에 나섰다.

“이것은 우리 부모님을 위한 싸움이다”

시장은 결코 자유로운 경쟁의 장이 아니며, 기득권 집단이 충돌 통해 헤지펀드의 이익을 보호하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2008년 때와 하나도 달라지지 않은 행태였다. 레딧의 주 이용자인 20~40대는 2008년 금융위기 여파를 정통으로 맞은 세대다. 당시 약 87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1,000만 명이 집을 잃었다. 오바마 정부는 천문학적 공적자금을 투입해 ‘경제적 살인’을 저지른 월가를 규제했고, 그들은 엄청난 보너스 잔치를 벌였다. 레딧에는 자신이 왜 게임스탑 사태에 참여했는지 밝힌 수천 개의 글이 올라왔다. “나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가정을 박살낸 것을 기억한다. 아버지의 견실한 회사는 하루 만에 망했고 우리는 집을 잃었다. 그동안 헤지펀드놈들이 샴페인을 마시며 월가점령 시위대를 내려다보던 것을 기억한다. 아버지, 이젠 당신을 위한 싸움이에요.” “월가가 내 10대를 앗아갔다.” “이 이야기는 우리 부모님들의 복수담이다.” 어린 시절 금융위기를 겪은 미국 중산층 자녀들의 좌절과 분노가 이 운동을 만들어낸 것이다.

대통령도 이기지 못한 금융권력에 맞서

1864년 링컨 대통령은 말했다. “나에게는 중대한 두 개의 적이 있다. 하나는 내 앞의 남부군이며, 하나는 내 뒤에 도사린 금융기관이다. 이중 후자가 더 큰 위협이다.” 1913년 연방은행법에 서명한 윌슨 대통령은 “미국 금융시스템은 소수의 손에 달려있다. 우리는 가장 완벽하게 통제되고 지배받는 정부가 되었다”고 고백했다. 이후 연중에서 화폐발행권을 되찾으려 했던 케네디 대통령은 1963년 암살당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출마 때부터 이들을 정조준했다. “연준이 우리 경제의 유일한 문제다. 월가는 수많은 노동자에게 가난과 슬픔의 고통만을 남겼다.” 퇴임한 트럼프가 게임스탑 사태의 중심에 거론되는 이유다. “트럼프 때문에 헤지펀드가 무너지고 있다. 게임스탑 대중혁명의 뿌리는 ‘트럼프즘’이다”(CNN), “트럼프 스타일의 혁명”(CNBC) 등 주류 언론조차 이 사태를 ‘트럼프의 유산’이라고 분석한다. 트럼프 시대를 살며 세계와 자신의 삶을 좌우하는 실제적 권력은 권력의 존재(덱스 테이트)를 깨달은 미국 청년들의 저항이 게임스탑 사태로 터져나온 것이다. 이들은 말한다. “우리 운동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① 1월 22일부터 29일까지 ‘미친 일주일’ 동안 게임스탑 주가 차트
② 2011 월가점령시위 ©occupy.com



올해로 ‘세월호 참사 7년’! 그러나 진실은 여전히 침몰 중입니다. 유가족은 “기다리고만 있다면 내 아이를 또 잃어버릴까 봐” 국회, 검찰, 법원 그리고 청와대를 향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행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현황과 유가족의 절박한 목소리를 전합니다. 글 | 윤지영 글로벌평화나눔 팀장

6년 만에 ‘국회 농성’에 나선 유가족

지난해 12월, 세월호 유가족은 국회에서 노숙농성을 했습니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의 종료일이 단 일주일 남았는데,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개정안이 야당 ‘국민의힘’ 반대로 상정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6년 만에 다시 국회 농성에 나선 유가족은 “국민이 174석을 준 이유를 잊지 말라!”며 여당을 압박했고 법안은 결국 통과됐습니다. 사참위 기간은 2년 연장됐고, 참사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도 정지됐습니다. 세월호 전체 CCTV 조작 의혹 등을 수사할 특검법도 통과됐습니다. 그러나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해 박근혜 정부의 대통령 기록물과 군·기무사·국정원의 내부문건을 요구해온 사참위에 ‘수사권’은 끝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영장청구 의뢰권한과 압수자료 열람권이 주어졌지만, ‘검찰에 의존한다’는 한계가 남았습니다.



2020년 12월 3일, 국회 앞에서 노숙농성을 한 유가족. ©연합뉴스

검찰 수사의 최종 결론은 ‘무혐의’ 처분

“검찰은 스스로 개혁의 대상임을 입증했다.” 지난 1월 19일,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의 수사결과에 대한 유가족의 일갈입니다. “백서를 쓰는 심정으로 철저히 수사하겠다”던 검찰은 1년 2개

월만에 세월호 관련 17개 사건 중 무려 13개에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법무부의 검찰 수사 외압, 청와대의 감사원 감사 외압, 기무사·국정원의 유가족 사찰, 발견 당시 맥박이 뛰고 있던 해임경비군에 대한 해경의 구조방기 등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조사하지도 않았고,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우병우 민정비서관은 서면 조사만 진행했습니다. 임경빈군도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면 구조 매뉴얼 준수 여부 등 핵심 쟁점을 비켜갔습니다. 그렇게 검찰 특별수사단은 세월호 침몰, 구조방기, 진실 은폐와 조사 방해, 사찰과 탄압 등의 범죄와 과거의 잘못된 검찰 수사에까지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1월 22일, 청와대 앞에서 식발 후 눈물 흘리는 유가족. ©연합뉴스

참사의 본질을 뒤집은 법원의 ‘무죄’ 선고

법원은 지난 2월 15일, ‘세월호 구조 실패’ 1심 재판에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전·현직 해경 관계자 11명에게 ‘전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퇴선 유도, 선체 진입 등 당연한 구조 활동도 하지 않은 해경에게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은 것입니다.故유예은양의 아버지 유경근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대법원은 이미 2015년 해경 지휘부와 정부에 책임을 묻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며, “살아야 했는데 죽임을 당했다는 참사의 본질”까지 재판부가 뒤집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실 사법부는 세월호 참사에 대해 ‘판결의 자격’을 잃은 지 오래입니다. 지난 2월 4일,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에서 탄핵된 임성근 판사는 2015년 당시 ‘세월호 7시간’ 재판에 개입한

혐의가 있습니다. 또한 2017년 황교안 권한대행이 ‘봉인’한 박근혜 대통령 기록물 공개 소송은 대법원이 2년 가까이 심리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라” 해놓고 침묵하는 청와대

“박근혜 탄핵”까지 2년 11개월을 싸웠는데, 문재인 대통령만 믿고 기다린 시간은 3년 8개월입니다.” 유가족은 군·국정원 등의 국가기관들이 적극 수사에 협조하도록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청와대 앞에서 노숙농성 89일, 피켓팅은 470일 넘게 한 ‘경빈 엄마’ 전인숙님과 “영터 리 수사, 영터리 재판이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다. 진상규명 책임지겠다던 그 약속, 어떻게 지킬 것인지 말씀 좀 해달라!”며 오열했던 ‘에은 아빠’ 유경근님, 그리고 눈보라를 맞으며 40일 동안 청와대 앞 노숙농성을 했던 다른 유가족 엄마아빠들에게 하루하루는 “잔인한 기다림”입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침묵을 지켰고, 유가족에게 다가선 것은 촛불을 든 시민들이었습니다.

광화문에서 “다시 촛불, 다시 세월호”

지난 2월 6일부터 청와대 인근에서 매주 토요일 진행되는 ‘촛불 피켓팅’. “처음 그때처럼 다시 국민들께서 따뜻한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라는 유가족의 호소에 많은 시민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4년 전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에게 본분을 잊지 말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전면 재수사, 성역 없는 진상규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합니다.



1월 30일, 청와대 인근 촛불 피켓팅에 참여한 시민들. ©나눔문화

새해 새 희망이 되어주신 회원가입,

회비증액, 특별후원 회원님 고맙습니다

중학생이 된 기념으로 용돈을 더 나누입니다

제가 11살 때 세뱃돈을 모아 나눔문화에 보냈었어요. TV에서 본 아프리카 사람들을 돕고 싶었거든요. 그 뒤로도 매년 세뱃돈을 보냈죠. 저의 '세뱃돈 챌린지'에 함께하실 분, 어디 계세요?^^ 올해 중학교에 입학하는 기념으로 좀 더 나누려고 합니다. 제 용돈으로 매월 후원하는 거죠. 나눔문화에서 전해준 홍콩 민주화 시위 소식을 보면서, 바로 홍콩으로 달려가 힘이 되어주고 싶었어요. 우리나라도 불의에 맞선 분들 덕분에 잘 살게 된 거잖아요. 세월호도 코로나도 전쟁도 제가 해결할 수는 없지만 같이 울고 화내고 알릴 수 있잖아요. 그렇게 평화가 오면 좋겠어요. 회원가입, 특별후원 문태현님



좋은 기운이 번져가는 건 참 행복한 일입니다

초등 교사모임의 선생님들과 라 카페 갤러리를 찾아가 박노해 사진전을 관람하고 잠시 중단했던 나눔문화 후원도 재신청했습니다. 이날 동행한 분들도 회원가입을 하였는데, 이렇게 좋은 기운이 번져가는 건 참 행복한 일입니다. 한 명 한 명의 힘은 미약해 보여도 모든 것은 사람에게서 출발하는 걸 보면, '한 사람의 힘'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박노해 시인의 인류애가 수천 명에게 번져 '나눔문화'를 이루고, 먼저 인연이 된 저를 통해 또 다른 분들이 회원가입을 하고 좋은 인연도 맺게 되었으니 '오늘 참 잘 살았다' 싶었습니다. 회원가입 인경화님



교과서에 실린 박노해 시인의 시를 가르치다가

'나눔문화 회원가입'이 올해 저의 버킷리스트였어요. 박노해 사진전을 볼 때마다 많은 감동을 받았거든요. 국어 교과서에 박노해 시인의 시가 종종 나오는데, 수업 준비를 하다가 사진전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교과서에는 '80년대 노동시인, 박해 받는 노동자의 해방'처럼 교과서스러운^^ 언어로 소개되어 있는데, 사진전에서 만난 시인의 사진과 글은 너무 따뜻해서 놀랐어요. 시인은 수배와 고문 등 모진 고통을 다 겪고도 어떻게 사람에 대한 연민과 사랑을 잃지 않고 계속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시인의 사진을 보며 위안을 받는답니다. 회원가입 심정은님



어머니의 노트에서 박노해 시인의 시를 읽고

어머니가 손으로 써 내려간 시 시 노트에서 박노해 시인의 시 「부모로서 해줄 단 세 가지」를 보았어요. 어쩌면 구절마다 마음에 쏙쏙 와닿는지 시인이 어떤 분인지 궁금해졌죠. 인스타그램에서 '박노해의 걷는 독서'를 꾸준히 보다가 라 카페 갤러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새해에는 좋은 가치를 추구하는 분들과 더 가까워지고 싶어서 회원가입도 했습니다. 나눔문화 소식을 우편으로 받아볼 때마다 선물 받는 것처럼 기쁠 것 같아요. 그 기분을 함께 느끼고 싶어서 남자친구 이름으로 회원가입서를 한 장 더 썼습니다. 회원가입 김민주, 김사명님



20년 회원 윤도현의 인터뷰를 읽고 회원가입

지난 소식지에 실린 윤도현님의 인터뷰를 보고 저도 후원을 하고 싶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가수가 제가 좋아하는 박노해 시인에게 영감을 받는다고 하니 보탬이 되고 싶었습니다. 정부 지원과 재벌 후원을 안 받는 나눔문화의 원칙을 보고 믿음도 생겼습니다. 회원가입 김미정님



나의 양심을 두드린 책 『푸른 빛의 소녀가』

책 모임에서 박노해 시인의 새 책 『푸른 빛의 소녀가』를 함께 읽었어요. 이 책이 외면하고 있던 저의 양심을 두드리더라고요. 우주에서 온 소녀를 따라가지 않고 "난 내게 전송되고 간직해온 이 사랑의 불을 지구별의 아이들에게 꼭 전해줘야 해요"라고 말하는 시인의 모습에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었어요. 시인은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요.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길 바라며 나눔문화를 후원합니다. 회원가입 전명선님



좋은 마음으로 좋은 일을 해나가는 연구원들

좋은 일을 해나갈 때,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좋은 마음이 아니라면 진짜 좋은 일이 아니겠지요. 나눔문화의 활동과 보내오는 소식지와 문자를 보면, 나눔문화 연구원들이 스스로 마음을 수련하며 일하는 것이 느껴져요. 회비증액 나누는 가족박정신, 이성래님, 딸 이연주님



나누는 것을 과시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았어요

나눔문화 20주년 소식지를 읽으며 큰 울림을 받았습니다. 「나눔문화 20년 운동의 의미」라는 글에서 "나눔문화의 '나눔'은 '자선'과는 다릅니다. 나눔이 자선화되고 소비화되고 홍보 마케팅이 되면서 가난한 이들이 대상화되는 것을 경계해왔습니다"라는 부분이 와닿았어요. 연말 후원을 계획 중이던 제게 중요한 기준이 되어주었어요. 시혜를 베풀 듯 나의 '나눔'을 과시하려고 했던 건 아닌지 돌아보게 됐어요. 저도 잘 몰랐던 제 마음을 나눔문화를 통해 돌아보고 중요한 가치를 객관화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며 생활하기만도 버거워서 중요한 부분을 놓칠 때가 많은데, 올해도 제가 좋은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눔문화가 이정표가 되어주세요. 저도 관심에 진심을 더해 나누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별후원 임주영님



모아둔 여행자금의 일부를 나누입니다

친구와 함께 여행자금 마련을 위한 적금을 들어 두었어요. 만기가 되었는데 정작 여행을 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더 멋진 여행을 기약하며 원금은 적립하고 이자는 의미 있게 쓰기로 했습니다. 나눔문화 회원임을 자랑스러워하는 저와 제 친구의 마음을 전하고자 후원합니다. 나눔문화 연구원들도 여러분을 자랑스러워하는 회원들로 인해 뿌듯하고 든든함 느끼기를 바랍니다! 손편지와 함께 특별후원 최명순, 표정미님



기본소득 소책자가 널리 퍼지기를 바랍니다

나눔문화 회원인 아내가 소책자 『모두를 위한 권리 - 한 권으로 읽는 기본소득』을 건네줬어요. 평소 관심 있는 주제여서 20부를 더 신청해 회사 직원들에게도 나눠줬죠. 퀴즈를 내어 맞추면 상품권도 드리기로 했습니다^^ '재물은 평등하기가 물과 같고 사람이 바르기는 저울과 같다(財上平如水 人中直似衡)', 제가 좋아하는 글귀인데요. 사람을 평등하게 대하는 기본소득이 실현될 날을 바라봅니다. 소책자후원 신정곤님



코로나 때문에 '라카페' 운영이 걱정됐어요

라 카페 갤러리 운영도 어렵고 힘들었을 텐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후원이라서 후원금을 보냈어요. 친구 소개로 가입한 지 10년, 저와 나눔문화의 꾸준함을 응원해요. 특별후원 전명숙님

기념일 맞이 후원, 나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

내가 나에게 주는 생일선물로 옷, 화장품, 가방, 무엇 하나 성에 차지 않아 좀 멋있는 일을 해보기로 했어요. 연애인들이 한다는 '기념일 맞이 기부^^' 소식지에서 나눔문화의 평화활동 이야기를 읽으며 내 후원이 꼭 필요한 곳에 쓰였고, 현지에 계신 분들도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것이 느껴졌거든요. 통장 잔고는 줄었지만 마음은 충만해졌으니 나 자신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기념일 후원 윤혜지님



특별후원 | 김영주님-Sanford Wong님

“한국에 올 때마다 찾는 곳, 나눔문화”



박노해 사진전을 보러 미국에서 찾아온 김영주님. 2019년 회원가입에 이어 만기 적금 후원과 20주년 특별후원까지, 큰 힘이 되어주셨습니다. 인터뷰 이현지 연구원

회원가입 이후로 일 년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자주 오고 싶은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야 왔어요. 자가격리 중에 일 년치 나눔문화 소식지를 다 읽었는데 유익한 내용이 많았어요. 미국에 살면서도 잘 몰랐던 미국 대선과 국제 이슈 기사를 보며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어 좋았어요.

미국인 남편분과 함께 오셔서 더 반가워요

남편은 박노해 시인을 전혀 몰랐는데도, 사진전을 보는 내내 참 좋다며 사랑에 빠진 눈빛^^ 이더라고요. 그러니 제 마음도 좋네요.

처음 나눔문화는 어떻게 알고 오셨나요?

한국 뉴스를 보다가 박노해 시인의 이름을 오랜만에 들었어요.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보면서 울고 웃고, 한국에 가면 박노해 사진전을 꼭 보러 가야겠다고 다짐했죠. 정성이 느껴지는 라 카페 갤러리가 좋았고, 나눔문화 연구원들이 쓴 책 『촛불혁명』은 심장이 뛰었어요.

2016-2017 촛불혁명 때 한국에 계셨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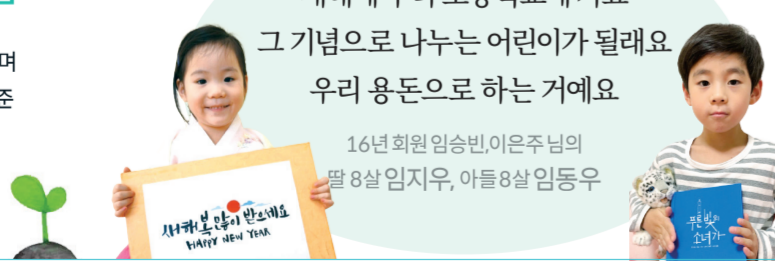
제 인생에서 잊지 못할 순간이었죠. 참여하고 싶어 세 번이나 비행기를 타고 왔어요. 우리가 촛불을 들고 외쳤던 그 세상으로 가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꾸준히 노력해야 할 거예요.

특별후원으로 힘 모아주세요 고맙습니다

시인의 사진과 글은 늘 제 마음 깊은 곳과 와닿아요. 어려운 현장을 다니며 전해주는 감동에 감사해요. 전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그쳐 할 뻔합니다.

나누는 어린이 새내기 회원님

세상에서 가장 멋진 대물림은 '나눔 세습'^^이라며 아이들에게 '나눔문화 회원가입'을 선물로 남겨준 나눔문화 회원님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속속자라나는 키만큼 나누는 마음을 키워나갈 '나누는 어린이'들의 첫인사를 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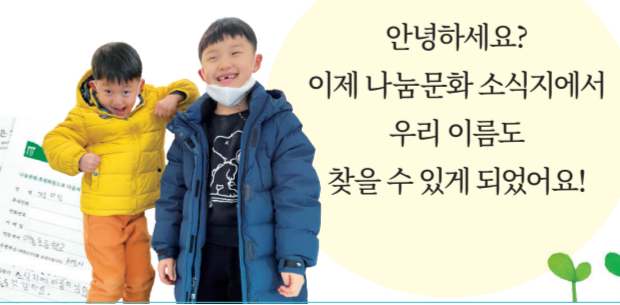
난민촌 친구들에게 공책이랑 그림책을 선물하고 싶어요

8년 회원 김미경님의 딸 7살 이선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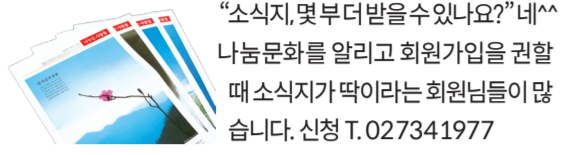
안녕하세요? 이제 나눔문화 소식지에서 우리 이름도 찾을 수 있게 되었어요!

강정희 고정현 김가솔·강진수 김동관 김문사 김미희 김범호 김선기 김송하라·송여진·김효겸 김수경 김수현 김아람 김영주·Sanford Wong 김장주나스구명재권민소영박기호 박노해 박성웅 백승호 서은수·이미영 서지영 석유진 송영선·조미옥 신익상 예신희 유성곤 유연희 윤미진 윤혜지 이명옥 이문환 이세나 이지현 이희수 임성희 임주영 전명숙 전영선 정선미 정원재 조경애 조연미 조희부 전관희 최창무 최희정 표정미 하원수 한동수 한종민 허진강 홍지오·정다솔 황선영 황지현



회원가입 74분 2020.12.22~2021.02.16 회원가입 74분 강소영 강수진 강주연 김경욱 김광진 김금수 김동철 김미정 김미정 김민주 김사명 김상휘 김성진 김시연 김영락 김영민 김은경 김민지 나지훈 나혜원 문규현 문태현 박경자 박수환 박영호 박용철 박주학 박주홍 백승호 부찬영 서윤희·정슬기 손경중 손석조·조경숙 신미성 신상미 심아름 심정은 안영숙 엄금희 연상철 오정은 유현아 유혜원 윤동열 윤슬 이선주 이선진 이영란 이옥진·유려원·전주주 이윤화 인경화 임동우·임지우 전명숙 전영민 전유미 정귀순 정도의 정수이 정아윤·정아민 정원재 정재원 조은수 채창원 최은진 최지현 하효석 한민형 동화숲배움나무 회비증액 24분 강윤희 고정현 김명수 김문자 김미향 김봄이 노항림 박정신 박주영 유근상 이성래 이연주 이은영 이훈남 장정옥 조건희 조수연 조연미 진현 최다영 최선화 최영은 탁승희 홍두리 특별후원 59분 강대현

지난호 <나누는 사람들>을 읽은 회원님들의 후기



“소식지, 몇부더받을 수 있나요?” 네^^ 나눔문화를 알고 회원가입을 권할 때 소식지가 딱이라는 회원님들이 많습니다. 신청 T.027341977

진정한 나눔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되더군요. 기념일에 이웃을 떠올린 분, 생업까지 그만두고 4대강 살리기에 뛰어난 김종술님, 힘든 노동의 결실을 나눈 복숭아 농부님, 11년 전 대학거부선언을 삶으로 이어온 김예슬 사무처장까지. 우리 사회가 굴러가는 건 묵묵히 내어 주는 분들 덕분인 것 같아요. 이명희님



나눔문화 소책자 『모두를 위한 권리- 한 권으로 읽는 기본소득』 잘 봤습니다. 지금 꼭 필요한 주제를 다뤄줬네요. 사람들이 기본소득에 관심이 있어도 깊이 공부할 기회가 없어 안타까웠어요. 철학적 배경부터 논란이 되는 내용까지 요점을 잘 정리해주어서 논의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경애님



소식지를 펼쳤는데 제 이름에 형광펜 밑줄이 짝~ 포스트잇이 딱! 표시돼 있는 거예요. 너무 고마워서 벽에 붙여놨어요. 어떻게 하면 감사한 마음을 잘 전할 수 있을지 고민한 정성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다들 10년, 20년씩 후원하나봐요. 문향란님

현장 소식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른 '예방적 살처분' 반대, <산안마을> 이성수 회원님의 이야기

작년 11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후 약 2,800만 마리의 닭이 살처분되었습니다. 최근 달걀값이 치솟은 이유입니다. 1984년부터 친환경 동물복지 산란계 농장을 운영 중인 경기도 화성시 산안마을. 이곳도 살처분을 피할 수 없었는데요. 안타까운 사연을 이성수 회원님을 만나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이곳 산안마을에서 34년째 닭을 키우고 있습니다. 햇빛과 바람이 잘 통하는 평지에 풀어놓고 현미와 풀을 베어 먹입니다. 동물복지농장 인증 기준이 1㎡당 9마리인데 저희는 4마리 정도가 삽니다. 경기도 방역선진형 농장사업에도 참여했고요. 그런데 12월 23일에 인근농장에서 AI가 발생했고 3km 이내에 있다는 이유로 '예방적 살처분' 명령을 받았어요. 2014년, 2018년에도 3km내 농

평소보다 두꺼워서 한 번 놀라고, 많은 회원님들의 이야기를 읽는 것이 마치 대화 나누는 것처럼 재밌어서 또 놀랐어요. 최근 '내가 잘 살고 있는 걸까?' 불안했는데, 많은 분들이 저처럼 나눔문화를 믿고 함께 하고 있다는 소속감에 안심이 되었어요. 가수 윤도현님부터 故김수환 추기경님까지 다양한 분들이 각자의 역할로 나눔문화를 이뤄왔다는 것도 새롭게 알게 되었네요.

'세계의 역사 나눔의 역사'도 꼼꼼히 봤어요. 한국 현대사부터 세계 이슈까지 20년을 한 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해주어서 공부가 되더라고요. 나눔문화가 어떻게 설립되어 지금의 활동까지 하게 됐는지 들을 기회가 없었잖아요. 회원 30명으로 시작했더니 제가 아는 활동이 나올 땐 '맛이, 이때 이랬는데! 난 뭘했지?' 엄청 반갑더라고요. 전 라 카페 갤러리에서 회원가입을 했고, '2016-17 촛불혁명' 때에도 나눔문화 빨강피켓을 들고 나왔거든요. 그 순간을 떠올리며 '와~ 나도 꽤 했구나' 뿌듯하기도 했답니다. 김다빈님



부부가 모두 후원하고 있어서, 한 명 몫의 나눔문화 소식지를 지인에게 보냈어요. 백 마디 말보다 직접 보는 것이 낫잖아요. 이번엔 회원가입 성공했어요. 이제 다음 바람을 찾고 있습니다^^ 홍성표님



장에서 AI가 발생했지만 살처분 대상은 아니었어요. 3km 규정이 그 이후에 생겼거든요. 우리 닭들은 지금껏 한번도 AI에 걸린 적이 없습니다. 살처분 명령을 거부해온 중에도 검사결과는 늘 음성이었죠. 살처분을 거부하고 행정소송, 언론 제보, 청와대 청원 등 할 수 있는 건 다 했는데 결국 59일만에 닭 3만 7천 마리와 달걀 130만 개가 살처분되었습니다. 그저 건강한 닭과 달걀, 그 달걀을 먹는 사람들까지 번영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해왔을 뿐인데 참담합니다. AI는 매년 발생합니다. 남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진할 겁니다. 이번 일이 애당초 인간도 모든 동물도 자연의 일부라는 관점에서 축산 방식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①산안마을에서 만난 이성수님 ② 폐기된 달걀 130만개 ③ 예방적 살처분에 반대하며 행정소송, 기자회견, 청원 등 운동을 벌여왔다. ④경인일보

회원님들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서영화님의 아들 리콩아, 지구별에 온 걸 환영해!

나눔문화 16년 회원 서영화님이 엄마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웃고 있는 리콩이를 바라보기만 해도 거울에 꽃이 피듯,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 차오른다고요. 세 식구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봄날의 신부, 엄기쁨님의 결혼을 축하합니다

<나누는 학교> 졸업생 엄기쁨님(나눔문화 4년 회원)이 서무경님과 백년가약을 맺었습니다. 같이 공부하고 서로 기도해주며 삶의 지도를 함께 그려온 두 분, 코로나로 염려 많았던 만큼 뜻깊은 결혼식 기원합니다.



임옥상님의 새해 맞이 전시 <나는 나무다>展

시대와 늘 호흡해온 민중미술계의 큰 나무, 임옥상 화가(나눔문화 20년 회원, 임옥상미술연구소장)의 전시가 열렸습니다. 흙을 올린 캔버스에 담긴 힘찬 봄의 에너지를 만나고 왔습니다. (~2/28 갤러리 나우)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회원님, 축하합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권태린님·박상언님·안유빈님·유연상님·유하람님·천수윤님·홍재오님, 중학교를 졸업하는 김루빈님·이아진님·조은수님·박정언님,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박필규님, 나눔문화 어린이 회원들 축하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한 번뿐인 졸업식조차 영상으로 대신하는 아쉬움이 클 것 같은데요. 그래서 더 축하와 사랑의 마음을 전하며, 지난 시간 잘 매듭짓고 힘찬 새 출발하기를 바랍니다.

일본 평화의 벗 코몬즈 출판사 오에 대표를 기리며

일본에서 들려온 슬픈 소식을 나눕니다. 2020년 1월 일본에서 한국의 『촛불혁명』 책을 발간했던 오에 타다아키(63) 대표가 질병으로 지난해 12월 별세하였습니다. 오에 대표는 한국의 역사·정치·문화에 대해 관심이 남달랐던 분입니다. “한국의 촛불혁명은 세계에 감동을 주었습니다. 일본 미디어가 물어버린 한국 민주주의의 도약을 전하고 싶습니다”라며 2년의 노력 끝에 일본어판 『촛불혁명』을 출간했습니다. 오에 대표는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생활양식과 먹을거리 자급자립에 대해 강조해 왔습니다. 봄이 되면 라 카페 갤러리에 다시 오셨다면 오에 대표님, 그리운 마음 담아 삼가 명복을 빕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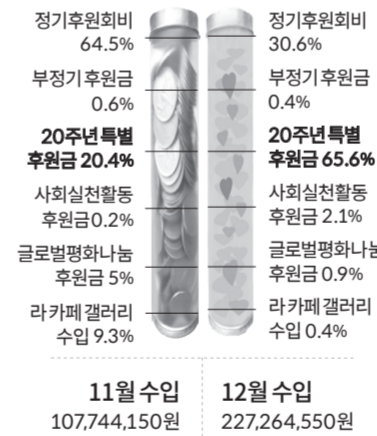
①『촛불혁명』 일본어판을 발간한 오에 대표 ②일본 출판기념회에서

나눔문화 활동보고



안녕하세요, 나눔문화 회계팀장 이향미입니다. 꽃피는 봄을 맞이하며 2020년 11-12월 결산 보고드립니다. 12월 정기후원은 7,069만원으로 전년 대비 월 204만원 감소했고, 코로나19로 인한 '실내 이용 불가' 지침으로 <라 카페 갤러리> 매출이 전년 대비 94%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시절에도 '나눔문화 20주년'을 맞아 보내주신 특별 후원금이 전년 대비 40% 증가했습니다.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일을 해나가라는 격려와 믿음, 나보다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는 따뜻한 나눔,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11-12월 특별 지출로는 나눔문화 소책자 『모두를 위한 권리 - 한 권으로 읽는 기본소득』 제작, <자이투나 나눔문화학교> 연말 특별 지원, 각계 현장에 후원금 전달, 20주년 기념사업 등이 있었습니다. 좋은 일들 함께! 새해에도 주변 분들께 나눔문화 회원가입을 권해주세요요. 신축년 흰 소피의 해, 우리 회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소!^^

나눔문화 11-12월 수입



나눔문화 11-12월 지출



※ 20주년 특별 후원금은 이월되어 이후 나눔문화 활동비로 쓰입니다

2021년 나눔문화 정기총회 안내 박노해 사진전 <길> 6/6까지 연장 '라 카페 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는 박노해 사진전 <길> 전시기간을 연장합니다. 오셔서 푸른 봄 기운 채워주세요! 문의 02 379 1975 11시~22시(월휴무) | 경복궁역3번 출구, 도보 7분

생명 문화 나눔 '참사람의 숲' 나눔문화는 생명·평화·나눔의 세계를 열어가자 2000년에 설립한 비영리사회단체입니다. 전 지구적 생태제약, 심화되는 양극화, 전쟁과 기아질병, 영혼의 상실이라는 위기를 직시하며 사회실천에 힘써왔습니다. 나눔문화를 설립한 박노해 시인은 계층과 이념, 종교와 세대, 국경을 넘어 '적은 소유로 기쁨있게' 살아가는 대안 삶의 혁명을 나눔문화 연구원들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원칙을 지키며 3,500여 회원님들과 '사람'과 '대안'을 키워온 나눔문화 20년. 참 좋으신 그대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나눔문화 후원회원이 되주세요! 나눔문화는 3,500여 회원님의 순수한 희비로만 운영해온 비영리사회단체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때에도 나누는 사회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나눔은 그대가 희망입니다. 후원회 가입 02-734-1977 | 010-8751-1977 전화 www.nanum.com <후원하기> 클릭 후원계좌 국민 009-25-0020-949 사)나눔문화연구소 농협 032-01-176410 나눔문화 우리 959-001951-13-001 사)법민인천우 나눔문화연구소 나눔문화는 지정기부금단체입니다. 연말정산 혜택은 소득금액의 30%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